

석보상절 권3의 불경 발취 양상 연구

김 미 경*

1. 서론
2. 연구의 성격과 방법
3. 『석보상절』 권3 본문 작성 과정에서의 불경 발취
4. 결론

1. 서론

『석보상절』은 세조가 수양대군이던 때에 세종으로부터 석존의 일대기를 한국어로 지으라는 명을 받아 여러 문헌을 참고하여 지은 책이다. 다른 중세 한국어 자료의 대다수가 한문 원문과 한국어 언해문의 대응을 이루는 번역문인 데 비하여, 『석보상절』은 그 내용의 바탕을 이루는 한문 불경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 참고된 문헌들의 상세나 한문 초고가 전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연구자들에게 한층 더 어려운 문헌이라고 할 수 있다. 『석보상절』의 편찬 과정에서 불경 문헌을 이용한 과정에 대해, 『석보상절』의 서문에서는 “여러 경에서 골라 냈다”고만 하였다. 그러나 『월인석보』의 어제서문을 통해 『釋迦譜』와 『釋迦氏譜』를 합쳐서 지었음을 알 수 있고, 후대에 수행된 여러 『석보상절』 저경 연구들에 의해 이 두 권 이외에 여러 문헌을 참조했음이 밝혀졌다.

이 글은 『석보상절』 권3에 서술된 석존의 일대기를 다룬 불경들을 검토하여, 내용 구성 과정에서 참고되었을 원문을 구절 단위로 제시하는 데에 목표를 둔

*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박사과정 연구생.

다. 특히 2005년에 김기중이 『석보상절』 현전본 전체에 대해 저경을 밝힌 부분과¹⁾ 2014년에 김성주가 『석보상절』 권3에 대해 구절별로 저경을 밝힌 부분들은²⁾ 제외하고, 이 두 연구에서도 미해결로 남았거나 미진한 점이 남은 구절의 출처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특히 기존에 저경으로 거론되지 않았던 『釋迦如來行迹頌』이 『석보상절』 권3에 적극적으로 이용되었음을 보일 것이다. 또한 『석보상절』 권3에 들어갈 내용을 정하고 주석을 달 때에 『歷代編年釋氏通鑑』, 『大唐西域記』와 『妙法蓮華經文句』 등이 참고되었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연구의 성격과 방법론을 서술하고, 탐색의 대상으로 삼은 문헌들을 간략히 소개한다. 3절에서는 『석보상절』 권3에서 저경이 아직 불분명한 구절의 출전을 제시한다. 특히 본문의 출처뿐만 아니라 주석의 출처 및 본문의 내용을 취사선택한 근거도 논의할 것이다. 4장에서 주장을 요약하고 마무리한다.

2. 연구의 성격과 방법

『석보상절』의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줄기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석보상절』이 담고 있는 중세 한국어를 해석하고, 이 언어의 공시 문법을 분석하는 한국어사 연구이다. 다른 하나는 『석보상절』의 내용의 출처가 되는 불경을 추적하는 연구로서, ‘저경 탐색’이라는 명칭으로 통용되며 한국어사 연구의 일부분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후자가 지니는 성격은 정확히 본문 비평(Textual Criticism) 연구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 계통의 연구를 저경 탐색 대신 『석보상절』 한문 초고의 본문 비평 연구로 분류해야 하며, 한국어사 연구와 연계하되 독립된 분야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문 비평이란 원전이 실전된 채 후대의 사본만 전해지는 텍스트를 만들어진

1) 김기중, 2005 「釋譜詳節의 저경과 저경 수용 양상」 『서지학연구』 30.

2) 김성주, 2014 「석보상절 권제3의 저경과 번역」 『국어사연구』 18.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연구 분야를 말한다. 주로 필사본으로 전해지는 텍스트에서 본문 비평 연구가 활발하다. 본문 비평이 가장 활발한 텍스트는 성서이며, 그 외에 고대 그리스·로마의 고전 텍스트와 셰익스피어의 문학 텍스트 등이 본문 비평의 주된 대상이다. 동아시아 고전 텍스트의 사례로는 『만엽집』을 대상으로 한 본문 비평을³⁾ 들 수 있다.

고전 텍스트의 본문 비평 연구가 축적되면, 원전의 모습에 가장 가깝다고 인정되는 비평판 텍스트를 편집하게 된다. 이 텍스트는 해당 고전의 내용을 다루는 타 분야의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자료가 되므로, 본문 비평 연구는 본질적으로 토대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문 비평을 잘 수행하려면 텍스트를 담은 후대 문헌의 성격과 텍스트의 내용에 대한 연구 양쪽을 이해해야 하므로, 문헌학과 언어학, 문헌학과 철학 등으로 학문간 연계가 반드시 필요한 연구이기도 하다.

중세 한국어 텍스트는 출판된 당시의 인쇄본(초간본)이 남아 있는 경우도 많고, 후대의 사본도 인쇄본인 사례가 많아 본문 비평 연구가 그다지 요청되지 않았다. 원문의 형태를 확정하려면 오자 등을 교감하는 것으로 충분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석보상절』에서 오각 양상을 분석하고 텍스트를 교정한 안병희의 연구를 들 수 있다.⁴⁾ 『석보상절』은 주로 중세 한국어 연구를 위한 자료로 이용되므로, 문헌이 발견되는 즉시 그에 담긴 중세 한국어문을 문법적으로 분석하고 현대 한국어로 옮기는 역주에 연구 역량이 집중되었다.⁵⁾ 『석보상절』을 문헌학적으로 다루는 것은 별도의 연구이기보다는 중세 한국어 연구의 일부분으로 인식되었다. 이호권이 석보상절의 서지와 언어를 하나의 연구에서 동시에 다룬 것이나,⁶⁾ 이화숙이 가획과 탈획 양상 검토와 어휘 분석을 한 논문에서 수행한 것은⁷⁾ 그러한 인식이 드러난 사례라고 할 수 있다.⁸⁾

3) 구정호, 1999 「萬葉集의 본문 비평과 그 實例: 본문 비평에 의한 본문결정」 『일본 연구』 14.

4) 안병희, 1992 「석보상절의 교정」, 안병희 지, 『국어사자료연구』, 문학과 지성사.

5) 천병식, 1985 『석보상절 제삼 주해』, 아세아문화사.

6) 이호권, 2001 『석보상절의 서지와 언어』, 태학사.

7) 이화숙, 2004 「석보상절 권3에 대한 一考察」 『국어사연구』 4.

8) 이 논문을 투고할 때까지 필자 또한 이러한 인식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심사평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다. 불민한 필자를 깨우쳐 주신 익명의 세 분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그러나 『석보상절』이 한문 불경들의 내용을 취합하여 작성되었다는 점과 당대의 학문 언어가 한문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석보상절』의 바탕이 되는 한문 초고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석보상절』에 참고된 불경을 탐색하는 일은, 곧 이 실전된 한문 초고를 재구성하는 일이 된다. 즉, 『석보상절』의 저경 탐색은 곧 『석보상절』의 한문 초고를 대상으로 한 본문 비평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석보상절』의 저경을 탐색한 선행 연구들로는 김기종의 연구와 김성주의 연구를 특히 참고할 만하다. 김기종은 현전하는 『석보상절』 전체에 대해 그간의 저경 탐색 성과를 종합하고 자세히 검토하였다.⁹⁾ 한편 김성주는 『석보상절』 권3만을 대상으로 삼아 김기종이 미해결로 남겼던 구절들의 출처가 되는 새로운 저경을 밝혀내었다.¹⁰⁾

이 글에서는 『석보상절』 권3에서 아직도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대응 관계가 미진한 채로 남은 구절과, 종래 주목을 받지 못했던 주석의 출전을 고찰할 것이다. 종래 이는 연구자 개인의 불교적 식견과 한문 문해력에 의존하는 바가 많았다. 그러나 『석보상절』은 석존의 일대기이고, 석존의 일생을 다룬 불경의 양은 방대하므로, 연구의 난이도가 매우 높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말뭉치 언어학 연구의 방법을 도입하고 『석보상절』 권3을 사례로 들어 그 적용 실례를 보이고자 한다.

『석보상절』 권3은 석존이 태어나서 출가하고 깨달음을 얻기까지의 과정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해당 시기의 석존의 일생을 수록하고 있으며, 14세기 이전에 만들어진 문헌들이 1차적인 저경 후보가 된다.

『석보상절』의 저경을 탐색한 이전 연구들은 불경 자료로서 대개 大正新脩大藏經을 이용하였다. 특히 김성주는 중화전자불전협회가 제공하는 『CBETA 漢文大藏經』(이하 CBETA)을 이용한 검색을 소개하였는데,¹¹⁾ 大正新脩大藏經, 卍新纂續藏經, 歷代藏經補輯 등 여러 자료가 한데 모여 있고 웹사이트에서 바로 검색

9) 김기종, 앞의 논문.

10) 김성주, 앞의 논문.

11) 위의 논문: 중화전자불전협회 『CBETA 漢文大藏經』(<http://tripitaka.cbeta.org/>). 2018년 1월 30일 접속.

할 수 있어 편리하다. 그러나 CBETA의 검색을 이용하면 CBETA에서 제공되는 모든 문헌을 검색하기 때문에, 검색 결과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살펴보기가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경 후보 말뭉치를 따로 구축하고, 말뭉치 검색도구를 이용하여 저경을 탐색하였다.

저경 후보 말뭉치를 구성한 방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석보상절』에 반영되었음이 확인된 문헌 텍스트를 CBETA에서 내려받아 권별로 컴퓨터에 저장한다. 『釋迦譜』와 『釋迦氏譜』를 일차적으로 넣는데, 『釋迦譜』는 고려본인 5권본과 宋·元·明본인 10권본이 있다.¹²⁾ 두 판본의 차이는 권1의 ‘釋迦降生釋種成佛緣譜 第四’가 ‘第四之一 ~ 第四之五’로 교체된 것이다.¹³⁾ 김기중에 따르면 두 판본이 모두 이용되었다고 볼 근거가 있으므로,¹⁴⁾ 第四之一에서 第四之五까지를 떼어내서 10권본 『釋迦譜』로 따로 저장하였다.¹⁵⁾

다음으로 1차 문헌에서 출전으로 밝힌 경들을 말뭉치에 넣었다.¹⁶⁾ 이때 추가된 불경들을 『동국역경원 불교사전』에서¹⁷⁾ 검색하여 이역본이 있거나 연관된 항목이 있으면 그 역시 말뭉치에 추가하였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 반영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 문헌도 추가하였다. 그리고 여태까지 지적되지 않았더라도 석존의 전기로 알려져 있거나, 불교학 전반에서 백과사전

12) 이 10권본은 宋·元·明대의 대장경에 수록되어 있어서 宋·元·明本으로 불리는데, 만들어진 시기는 늦어도 唐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것이다. 唐대의 승려 혜림(慧琳, 생몰 737-820)이 지은 『一切經音義』 권77에 ‘音釋迦譜十卷’이라고 하여 『釋迦譜』 10권본이 다루졌기 때문이다. 또한 5권본에는 『過去現在因果經』이 인용되지 않았지만, 『釋迦譜』를 요약한 『釋迦氏譜』에는 인용되었으므로 저자인 道宣의 활동 시기 이전에 10권본이 있었을 것이다.

13) 이호권, 2001 『석보상절의 서지와 언어』, 태학사.

14) 김기중, 앞의 논문.

15) 大正新脩大藏經은 고려본을 수록하되 권1의 말미에 10권본의 ‘第四之一 ~ 第四之五’를 붙여서 두 판본을 함께 실었다(“釋迦降生釋種成佛緣譜 第四之文 與宋元明三本 大異 今以宋本元本宮本 對校明本 別附卷末”).

16) 『釋迦譜』에서는 각종 경뿐만 아니라 『四分律』 등도 참고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검토하지 않고도 연구목적은 달성할 수 있었기에 살펴보지 않았다. 『석보상절』의 다른 권들 및 이 글에서 검토하지 않은 『석보상절』 권3의 내용을 살펴보려면 문헌을 더 확대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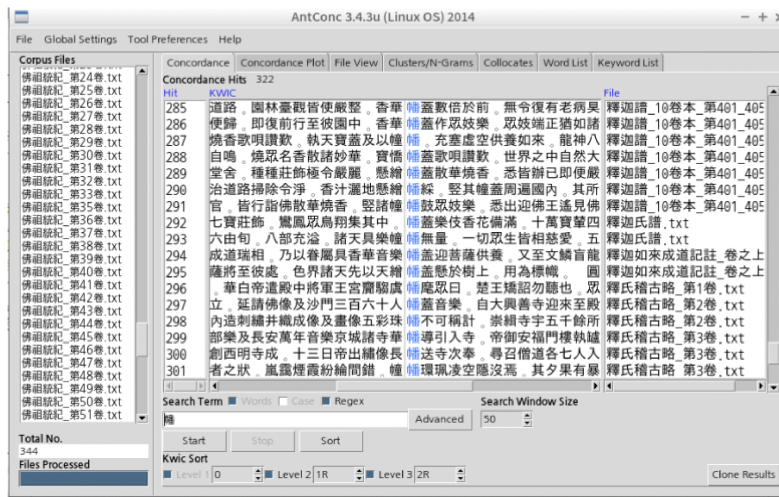
17)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한글대장경 웹사이트(<https://abc.dongguk.edu/ebti>), 2018년 1월 30일 접속.

처럼 이용되고 있는 문헌이 있으면 말뭉치에 추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말뭉치에 추가된 문헌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말뭉치에 2차로 추가된 문헌 목록

- 가. 普曜經(8권), 方廣大莊嚴經(12권), 過去現在因果經(4권), 佛說太子瑞應本起經(2권), 修行本起經(2권), 異出菩薩本起經(단권), 佛本行集經(60권)
 나. 雜寶藏經(10권), 註釋迦如來成道記(2권),¹⁸⁾ 釋氏稽古略(4권), 五燈會元(20권), 佛祖統紀(54권), 佛祖歷代通載(22권), 歷代編年釋氏通鑑(12권), 大唐西域記(12권)
 다. 佛本行經(7권), 佛所行讚(5권), 釋門正統(8권)
 라. 法苑珠林(100권)

위와 같이 구성한 저경 후보 말뭉치를 대상으로, 『석보상절』 권3에서 저경이 불분명한 구절에 대응할 것으로 추정되는 한자 조합을 말뭉치 검색도구를 이용하여 검색하였다. 이번에 이용한 말뭉치 검색도구는 AntConc이다.¹⁹⁾ 이 도구의 생김새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저경 후보 말뭉치에서 “幡” 검색

18) 이 글의 논의에서는 해당 문헌을 구하지 못하여 CBETA에서 제공하는 『釋迦如來成道記註』(新纂續藏經 第75冊 CBETA id: X75n1509)를 이용하였다.

19) Antony, Laurence, 2014 *AntConc*(Version 3.4.3)[Computer Software]. Tokyo, Japan: Waseda University. Available from <http://www.laurenceanthony.net/>

김성주가 출처 미상으로 남겨둔²⁰⁾ “諸天이 몬져 하늬 幡과 蓋와 가져다가 즈게 우희 드라 보람 두니라(석상 3:42b)”의 출전을 찾기 위해, 말뭉치에서 “幡”을 검색해 보았다. 그러면 “幡”이 사용된 사례가 322건 검색되고 각 건마다 ‘幡’의 앞뒤로 50자까지 출력된다. 이 문장의 내용을 생각하면 ‘幡’의 근처에 ‘諸天’과 ‘蓋’, ‘上’ 등이 관찰될 것이다. 결과 목록을 훑어 내려가면 295번째의 『釋迦如來成道記註』 卷之上에 그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구절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²¹⁾

이러한 방식으로 되풀이하여 검색한 후, 여전히 출처를 찾을 수 없는 구절은 CBETA 온라인 검색을 이용하여 같은 방식으로 저경 후보를 탐색하고 말뭉치에 추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추가된 문헌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2) 말뭉치에 3차로 추가된 문헌 목록

釋迦如來行蹟頌(2권), 大智度論(100권), 傳法正宗記(9권), 楞嚴經集註(10권), 妙法蓮華經文句(10권)

이상의 문헌을 대상으로 검색한 결과, 『석보상절』 권3의 본문에서 출처가 불분명했던 구절은 물론,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주석들의 출처도 추정할 수 있었다. 이 글에서 검토한 주요 문헌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문헌 설명의 대부분은 『동국역경원 불교사전』에 의거하였다.

우선 석존의 일생을 다룬 문헌은 다음과 같다.

- 『普曜經』, 『方廣大莊嚴經』 : 석존의 탄생부터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를 자세히 다룬 경으로서, 동일 원전의 이역본이다. 『普曜經』은 西晋대의 승려 축법호(竺法護, 생몰 239-316)가 번역하였고, 『方廣大莊嚴經』은 唐대의 승려 지바가라(地婆訶羅, 생몰 613-687)가 번역하였다.
- 『太子瑞應本起經』, 『過去現在因果經』 : 석존의 전생부터 시작하여 출가하여 제

20) 김성주, 앞의 논문.

21) 여기에서 ‘幡蓋’가 ‘幡蓋’로 입력되었다는 문제가 있다. CBETA를 이용할 때에는 이러한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 이 문제는 말뭉치 검색 도구에서 정규식(regular expression)을 사용하여 검색하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CBETA 온라인 검색에서도 기초적인 정규식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幡蓋” OR “幡蓋”로 검색하면 ‘幡蓋’ 또는 ‘幡蓋’가 사용된 문서를 찾아 준다.

자들을 제도할 때까지를 다룬 경이다. 『太子瑞應本起經』은 吳의 승려 지겸(支謙, 활동 222-252)이 번역하였고, 『過去現在因果經』은 宋의 승려 구나발타라(求那跋陀羅, 생몰 394-468)가 번역하였다.

- 『佛本行集經』: 석존의 전생부터 탄생 후 출가하여 제자들을 제도할 때까지의 일을 다룬 경이다. 隋의 승려 사나굴다(闍那崛多, 생몰 523-600?)가 번역하였다.
- 『釋迦譜』: 梁의 승려 승우(僧祐, 생몰 445-518)가 지은 석존의 일대기이다. 여러 경과 율에서 문장을 뽑아서 구성하였고, 사건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다. 승우가 처음 지은 것은 5권본이지만 이후 어느 시점에 일부 내용이 교체·확장된 10권본이 존재한다. 『석보상절』 권3과 관련된 내용은 주로 『釋迦降生釋種成佛緣譜』에서 나온다. 이하에서 세부 목차를 지정하지 않고 5권본 『釋迦譜』라고 쓰면 『釋迦降生釋種成佛緣譜 第四』를 가리키고, 10권본 『釋迦譜』라고 쓰면 『釋迦降生釋種成佛緣譜 第四之一 ~ 第四之五』를 가리킨다.
- 『釋迦氏譜』: 唐의 승려 도선(道宣, 생몰 596-667)이 지은 석존의 일대기이다. 『釋迦譜』를 줄여서 지은 것인데, 5권본 『釋迦譜』에 인용되지 않은 『過去現在因果經』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10권본 『釋迦譜』를 참조한 듯하다.
- 『註釋迦如來成道記』: 唐의 시인 왕발(王勃, 생몰 649?-676)이 지은 짧은 글인 『釋迦如來成道記』를 北宋대의 도성(道誠)이 주석한 것이다. 석존의 탄생부터 입멸까지를 다루고 있다.
- 『釋迦如來行蹟頌』: 고려 말의 승려 운묵 무기(雲默無寄, 활동 14C 전반)가 석존의 일대기를 노래로 짓고 주석을 단 텍스트이다.

이 중 『註釋迦如來成道記』를 지은 도성에 대해서 약간의 논의가 필요하다. 도성의 활동 시기에 대하여, CBETA는 물론 국내에서 『註釋迦如來成道記』를 다룬 대부분의 연구에서 도성이 唐대에 활동한 것으로 적었다. 그러나 이는 北宋 때에 활동한 승려 도성의 오류일 것이다. 우선 중국 항주시가 있던 지역의 도읍지(都邑志)로서 1268년에 완성된 『咸淳臨安志』 권70의 ‘道誠’ 항목에서, 도성은 慧悟大師를 가리키며 왕발이 지은 석가성도기를 주석하였다고 설명하였다.²²⁾ 『註釋迦如來成道記』의 서두에는 “錢唐 月輪山 居 慧悟大師 賜紫²³⁾ 道誠 註”라고 적

22) 원문은 다음과 같다. “道誠：慧悟大師 錢唐人 居月輪山 天禧中 撰釋氏要覽三卷 又注王勃所撰釋迦成道記 丞相王隨知杭州日有贈慧悟詩 餘弼題慧悟禪師上方詩…” [Dr. Donald Sturgeon(德龍) 主編,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Chinese Text Project) 『咸淳臨安志』 (<http://ctext.org/>)]. 2018년 1월 30일 접속.

23) ‘賜紫’는 국가에 공훈을 세운 승려에게 내려지던 호칭이다(박윤진, 2015 『高麗前期 ‘賜紫沙門’의 의미와 역할』 『역사민속학』 49, 162-163면).

혀 있는데, ‘唐’은 종종 ‘塘’을 대신하여 쓰이기도 한다. 항주의 전당강(錢塘江) 근처에는 월륜산(月輪山)이 있다. 北宋의 道誠이 지은 『釋氏要覽』의 서두를 보면, “錢塘 月輪山 居 講經論 賜紫沙門 釋道誠 集”이라고 적혀 있어 같은 형식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註釋迦如來成道記』를 북송 대의 문헌으로 본다. 역사서로서 석존의 일대기를 함께 수록하고 있는 문헌은 다음과 같다.

- 『歷代編年釋氏通鑑』(이하 釋氏通鑑) : 南宋의 승려 본각(本覺, 활동 1265-1274)이²⁴⁾ 지은 역사서이다. 편년체 역사서인 『資治通鑑』의 체제를 따라 석존의 일생을 1년 단위로 서술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 『佛祖統紀』 : 南宋의 승려 지만(志磐, 1269년 저술)이 천태교의 전통을 기록한 역사서이다. 기전체로 되어 있으며, 석존의 일대기를 본기(本紀)에서 다루었다.
- 『佛祖歷代通載』 : 元의 승려 염상(念常, 생몰 1282-1341)이 지은 역사서이다. 고대로부터 원나라 순종 원통 1년까지 역대 제실과 고승의 전기, 불교 사적 등을 기술하였다. 권4에서 석존의 일대기를 다루었다. 『釋氏通鑑』과 마찬가지로 편년체로 기술되어 있다.

이 글의 관심사는 이들 문헌 가운데 어느 것이 어떻게 이용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석보상절』 권3이 주로 『釋迦譜』와 『釋迦氏譜』, 『註釋迦如來成道記』와 『釋迦如來行蹟頌』을 발췌하여 일어난 사건을 구성했다고 주장한다. 『佛本行集經』, 『普曜經』, 『過去現在因果經』 등 각 문헌이 출처로 삼고 있는 원전들도 함께 확인하기는 하였겠지만, 이들 원전은 대부분 서술이 매우 길다. 각각의 서사가 『석보상절』 권3에서 요약된 양상을 살펴보면, 『註釋迦如來成道記』 및 『釋迦如來行蹟頌』과 비슷한 점이 많다. 또한 사건별로 석존의 나이와 역사적 시점을 밝히는 주석이 있는데, 이는 주로 『釋氏通鑑』에 근거하여 사건의 선후와 시기를 정하였다고 본다. 또한 집필 과정에서 어려운 용어는 최대한 쉬운 말로 바꾸고, 바꿀 수 없을 때에는 『大唐西域記』 등 여러 문헌을 활용하여 주석을 달았음도 확인할 수 있다. 그 자세한 양상을 3절부터 살펴보겠다.

24) 本覺의 활동 시기 정보를 찾을 수 없어 曹仕邦이 쓴 다른 주제의 연구에서 간략히 언급된 것을 따랐다(曹仕邦, 2003 『愛國僧人釋熙仲和他的佛教編年史』 『釋氏資鑑』, 『中華佛學學報』 16, 133면).

3. 『석보상절』 권3 본문 작성 과정에서의 불경 발취

『석보상절』 권3의 저경들과 장면별 출처는 김기종과 김성주의 연구에 잘 정리되어 있다.²⁵⁾ 이 글에서는 선행연구에서도 아직 미해결로 남았거나, 정확히 대응하지 않아 미진하게 남은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이하 『석보상절』 권3에 등장하는 순서를 따라 장면별로 살펴본다.²⁶⁾

1) 集藝歷試

‘집예역시’는 태자가 집장석(執杖釋)의 딸 구이(俱夷)를 왕비로 얻는 장면으로서, 『석보상절』 권3의 10면에서 14면까지에 수록되어 있다. 이에 관하여 종래 10권본 『釋迦譜』가 저경으로 제시되었는데,²⁷⁾ 이에 빠져 있는 내용이 일부 있으므로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에서 저경이 불분명한 구절은 다음과 같다.

(3) 集藝歷試 장면에서 저경이 불분명한 구절

(상략) 살 머겨 쏘시니 그 사리 스물여덟 부플 다 빼여 짜해 슴차 가아 鐵圍山에 바그니 三千 世界 드러치니라 (ㄱ)天帝釋이 그 사를 짜해 忉利天에 가아 塔 일어 供養호습더라 (ㄴ)[이 塔은 天上 네 塔엿 호나히라] (ㄷ) 살든 굶긔셔 식미 나아 우므리 드외니 마시든 수을 곤더니 머그면 病이 다 도터라 (하략)

김성주는 (ㄱ,ㄴ)을 저경이 불분명한 구절로 보지 않았는데,²⁸⁾ 김기종이 『佛本行集經』 권13에 유사한 구절이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에²⁹⁾ 이미 밝혀진 것으로 간주한 듯하다. 해당 구절은 다음과 같다.

25) 김기종, 앞의 논문: 김성주, 앞의 논문.

26) 장면의 분절은 위의 논문들을 따랐으나 장면의 이름은 『釋迦氏譜』를 따랐다. 『釋迦氏譜』에서 한 장면인 것이 분절될 때에는 이름에 번호를 붙였다.

27) 예문 (3)에 관하여 김성주는 10권본 『釋迦譜』의 ‘時大臣炎光 ~ 不及菩薩’에 해당한다고 하였다(김성주, 앞의 논문, 225면). 그런데 이는 5권본 『釋迦譜』에 나오는 대목이며 지식을 거루는 장면을 묘사하므로, 필경 오타인 듯하다.

28) 김성주, 앞의 논문, 224-225면.

29) 김기종, 앞의 논문.

- (4) 『佛本行集經』 권13의 활쏘기 겨루기에서 (3ㄱ, ㄴ)과 유사한 대목
 捩術爭婚品下 : 是時太子所射之箭 天主帝釋從虛空中 秉執將向三十三天 至天上已 爲此箭故 於彼天中 建立箭節 常以吉日 諸天聚集 以諸香華 供養此箭 乃至於今 諸天猶有此箭節日 (중략) 太子執箭一射 便穿七鐵猪過 七猪過已 彼箭入地 至於黃泉 其箭所穿 入地之處 卽成一井 於今人民 常稱箭井

그러나 김기중도 명확히 언급했듯이, (4)는 석보상절과 정확히 대응하지는 않는다. 『佛本行集經』에서 이 사건은 태자가 활을 쏘기 전에 일어난 일로 서술되어 있으며, 탑을 짓는다는 명시적인 언급이 없고, 물의 맛에 대한 언급이 없다. 반면에 『註釋迦如來成道記』에서 (3ㄱ, ㄴ) 및 (3ㄷ)에 대응하는 서술을 찾을 수 있다.

- (5) 『註釋迦如來成道記』에서 (3ㄱ-ㄷ)에 대응하는 서술
 “爲講武也箭塔箭井猶存” : 太子師屬提提婆此云忍天學武 本行經云 太子年十五 與諸釋種鬪射 一箭穿透七金鼓 又一箭徹一鐵猪 其箭透出著地入土 幽泉迸涌 (ㄴ)時天帝釋取其箭歸忉利天上建塔盛貯供養 (ㄷ)此天上四塔之始一也 其泉涌處 人名爲箭井 唐三藏西域記云 箭井在迦毗羅城東南三十里 (ㄹ)其水味甘如醴 病者飲之卽愈 民于今利之

(5ㄴ-ㄷ)은 『佛本行集經』을 근거로 기술되었지만 자구가 『석보상절』에 더 가깝다. 화살을 제석천이 가져가서 탑을 세웠다는 서술이 있고, 바로 이어서 탑에 대한 주석이 나오는 순서도 (3ㄷ)과 같다. (5ㄹ)의 ‘그 물의 맛이 달아서 단술과 같고 아픈 사람이 먹으면 즉시 나았다’는 구절은 『註釋迦如來成道記』의 주석인데,³⁰⁾ 그 일부가 『석보상절』의 본문에 반영된 것이 (3ㄹ)임을 알 수 있다.

2) 出遊四門

‘출유사문’은 태자가 성문 밖으로 나가 늙음과 병듦과 죽음을 접하는 장면으로서, 『석보상절』 권3의 16면에서 21면까지에 수록되어 있다. 종래 『釋迦氏譜』와

30) 이는 『大唐西域記』가 출전으로 되어 있는데, 김기중이 지적한 『大唐西域記』 권6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측된다(위의 논문). 다만 해당 권에 병자가 치유된다는 언급은 있으나 물의 맛이 언급되지 않았다.

10권본 『釋迦譜』가 저경으로 지적되었다. 여기에서 저경이 불분명한 구절은 다음과 같다.

(6) 出遊四門 장면에서 저경이 불분명한 구절

太子 | 門 밖글 보아지라 ㅎ야시닐 (중략) 王이 臣下들드려 무르샤디 길홀 조케 ㅎ라 ㅎ다니 엇테 病흔 사르물 쏘 보게 ㅎ다 對答ㅎ스보다 슬표미샤 ㄱ 장 ㅎ얀마룬 아모 ㄷ셔 온 디 몰로리 문득 알퓌 내드르니 우리 罪 아니이다 (ㄱ)王이 하닐 이린 들 아르시고 罪 아니 주시니라 (중략) (ㄴ)[네 門 밖의 나샤미 부텃 나히 열아호비러시니 昭王 마순네찰 ㅎ 壬申이라]

(6ㄱ)은 지금까지 아무도 출처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 문장에 대응하는 서술은 여태까지 저경으로 거론되지 않았던 『釋迦如來行蹟頌』에 나온다.³¹⁾

(7) 『釋迦如來行蹟頌』에서 (6ㄱ)에 대응하는 서술

父王驚怪 責諸從者 卿等云何不沿衢道 以諸不祥令見之乎 群臣奏對 奉王嚴命 無不撿察 不知來處 忽現於前 非臣之罪 王知天變 不罪諸臣

(7)에서 밑줄로 표시한 구절은 (6ㄱ)에 구절 단위로 대응한다. 지금까지 지적된 저경들 가운데에서, 이 장면에서 왕이 하늘의 뜻인 줄 알고 신하들을 벌하지 않았다는 서술이 언급되는 것은 『釋迦如來行蹟頌』뿐이다.

(6ㄴ)은 사건별로 그 일이 있었을 때의 석존의 나이와 역사적인 시점을 밝히는 주석 중의 하나이다. 『釋迦譜』나 『釋迦氏譜』에서는 석존이 19세에 출가했다는 시점을 적을 뿐,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에서는 나이를 밝히지 않았다. 역사적인 시점 역시 적혀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것은 다른 문헌에서 참고했음이 분명하다. 김기중은 『석보상절』 권6에 등장하는 같은 양식의 주석에 대해 『佛祖歷代通載』를 참고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³²⁾ 또한 오지연은 『석보상절』 권6에 쓰인 저경의 하나로 『佛祖統紀』를 들었는데,³³⁾ 이 유형의 주석과 관련된 저경으

31) CBETA에서 이 문헌의 서지를 元나라의 승려 무기(無寄)가 지었다고 입력하였으나 이는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32) 김기중, 앞의 논문.

로 언급했으리라 추측된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사건별로 태자의 나이와 역사적 시점을 결정하는 데에 『釋氏通鑑』이 적극적으로 이용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출가부터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의 각 장면별로 석존의 나이와 연대를 정리하여 『석보상절』 권3, 『釋氏通鑑』, 『佛祖歷代通載』, 『佛祖統紀』의 서술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나이와 연대는 계산하여 추정이 가능하더라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비워 두었다.

(8) 석존의 출가에서 깨달음까지의 사건별 시점

사건	문헌	나이	연대	사건 서술
가	석보상절	19세	昭王 44년 壬申	出遊四門 → 2월 7일 출가 → 발가선림 → 阿藍迦蘭 선인 (3년 수행)
	釋氏通鑑	19세	昭王 44년 壬申	出遊四門 → 2월 8일 출가 → 발가선림 → 阿藍迦蘭 선인 (3년 수행)
	佛祖歷代通載	10~11세	昭王 癸亥甲子	集藝歷試 → 出遊四門 → 2월 8일 출가 → 阿藍迦 선인
	佛祖統紀	18세	昭王 43年 辛未	出遊四門
25세		昭王 50年 戊寅	2월 7일 출가 → 발가선림 → 阿羅邏仙人 → 迦蘭 선인 → 伽闍山	
나	석보상절	22세	--	鬱頭藍弗 선인 (3년 수행)
	釋氏通鑑	22세	昭王 47년 乙亥	鬱頭藍弗 선인 (3년 수행)
	佛祖歷代通載	--	--	--
다	석보상절	25세	昭王 50년 戊寅	출가후 6년째, 耶輸陀羅의 출산
	釋氏通鑑	--	昭王 50년 戊寅	출가후 6년째
	佛祖歷代通載	--	昭王 戊寅	30세까지 지속되는 6년 고행의 시작
라	석보상절	30세	穆王 4년 癸未	尼連河 목욕
	釋氏通鑑	--	穆王 4년 癸未	
	佛祖歷代通載	30세	穆王 癸未	
	佛祖統紀	30세	穆王 4년 癸未	

(8가-라)의 각 항목을 비교하면, 석보상절의 서술이 『釋氏通鑑』과 많이 겹치

33) 오지연, 2016 「『석보상절』에 대한 불교학적 연구와 그 과제: 『석보상절』 불교주해 편찬을 중심으로」 『불교학보』 77.

고 『佛祖歷代通載』와 『佛祖統紀』가 나머지 두 문헌과 어긋나는 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8가)에서 석존의 출가일을 2월 7일로 잡은 것은 10권본 『釋迦譜』의 기술을 택한 것이다.

(9) 석존의 출가 일자에 대한 10권본 『釋迦譜』의 기술

爾時太子心自念言 我年已至十九 今又是二月復是七日 宜應方便思求出家 所以者何

즉, 『釋迦譜』 또는 『釋迦氏譜』에서 사건별로 시점이 제시된 부분은 이 기술을 우선하고, 제시되지 않은 부분은 『釋氏通鑑』을 이용하여 보충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天神接擧 1

‘천신접거 1’은 태자가 출가하기 위해 궁을 나갈 때에 천신들이 태자를 에워싼 사람들을 모두 잠재우는 장면으로서, 『석보상절』 권3의 25면부터 28면까지에 수록되어 있다. 종래 이 장면의 저경으로 『佛本行集經』 권16의 ‘捨宮出家品 上 第 21’을 요약했을 가능성이 지적되었다.³⁴⁾ 그러나 해당 대목은 매우 길고 『석보상절』 권3의 묘사는 훨씬 짧으므로, 요약되는 과정을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10) 天神接擧 1 장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구절

(상략) 변조리던 각시들히 다리 드러 내오 손발 펴 버리고 주근 것갓티 그
우드러 이서 곳구무 데군케 드위혀고 민 니르리 몰 7초아서 자며 고춤
홀리고 오춤 씨니 니르리 박며 고 고으고 니 곶오 뷔 입 십고 방긔 니르리 흐
며 풍룻갓들 분안고 쓰라디엿거늘 그제 좃브리 뼈뎛 털가 잇더니 太子 | 보
시고 너기샤던 (하략)

(10)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기보다는 요약하여 의역했으리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요약할 때에 『方廣大莊嚴經』도 함께 참고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안해 본다. 각각의 원문은 매우 기묘로 관련이 있는 부분만 옮겨 두고 이 유를 설명하겠다.

34) 김기중, 앞의 논문.

- (11) 『佛本行集經』과 『方廣大莊嚴經』에서 (10)에 대응하는 서술
- 가. 『佛本行集經』 卷第16, 捨宮出家品: 是時衆中有一天子 名曰法行 來至宮內 以神通力 (A)令諸婬女身體服飾縱橫不正 (B)或有婬女 擲却箜篌 置於一邊 而身倚臥; 或有婬女 以其兩臂 抱鼓而眠 (중략) (C)或有宮人 (중략) 放氣出聲 大小麤細 臭處蓬勃 (중략) (D)猶如死屍 一種無異 (중략) (E)或有仰臥 長展手脚 (중략) (F)或有覆頭鼾睡而眠 (중략) (G)或有面孔青白 失色極醜而眠 (중략) (H)或有婬女以細腰鼓 懸於項上 絡腋而眠; 或有婬女 以於箜篌搭項而眠 (중략) (I)或有婬女齧齒[齒*吉][齒*吉]鳴喚而眠 (중략) (J)或有垂頭調語而眠 (중략) (K)或有失於大小便利不淨而眠 爾時 太子忽然而寤 視其宮內 (L)蠟燭及燈 (중략) 見諸宮人如是睡臥 (M)或執銅鈸笙瑟笳簫 琴筑琵琶箏笛螺貝 (N)口出白沫 鼻涕涎流
- 나. 『方廣大莊嚴經』 卷第6, 出家品: (A)爾時, 菩薩見於宮內所有美女性相變壞, 或有衣服墜落醜露形體 (중략) (B)或有脣口喎斜, 或有眼目角眇 (중략) (C)或涕唾交流 (중략) (D)或有面色青白怪狀恐人 (중략) (E)或復[齒*吉]齒 (F)或復調語 (중략) (G)或枕鼓而臥, 或抱箏而寢 (중략) (H)或失便痢 臭氣燻[火*孛] (중략) (I)見如是等種種相已靜念思惟

(11)은 각 문헌에서 『석보상절』에서 서술된 사건과 관련이 있는 구절을 뽑아서 서술된 순서대로 번호를 매긴 것이다. 두 문헌 모두 사건 서술 순서가 『석보상절』과 달라 얼른 대조하기 어려우므로, (10)에서 기술된 모습을 (11가,나)의 각 묘사와 짝지어 보았다.

(12) 석보상절과 『佛本行集經』, 『方廣大莊嚴經』의 묘사 대응

석보상절	佛本行集經	方廣大莊嚴經
다리를 드러내고 쓰러짐	A	A
손발을 펴 벌리고 쓰러짐	E	--
죽은 듯이 널브러짐	D	--
콧구멍을 ...게 뒤집음	G?	B? D?
밀까지도 못 갖추어 잠	A?	A?
콧물과 침을 흘림	N	C
오줌과 똥을 째	K	H
코를 골고 이를 갉	F, I	-, E
빈 입을 여닫음 (잠꼬대?)	J	F
방귀를 똥	C	H
악기들을 끌어안고 바닥에 널려 있음	B, H, M	G

(11가)는 자세하고 빠진 것이 없지만, 묘사되는 순서가 『석보상절』의 순서와 많이 다르다. (11나)는 『석보상절』에 등장하는 묘사 중 일부가 빠져 있으나, 서술된 분량이 비슷하고³⁵⁾ 묘사된 순서가 조금 더 『석보상절』에 가깝다.

쓰러지는 사람의 차이도 흥미롭다. 10권본 『釋迦譜』에서 이 장면은 구이(야수 다라)와 채녀들이 잠들어 추한 모습을 보이는 사건으로 묘사되었다. (11가)는 잠든 사람들로 궁 안의 사람들, 정반왕, 신하들, 마구간지기와 궁인 및 채녀를 각각 나열하였고, 사람들이 잠들어 추한 모습을 보이는 장면에서는 채녀와 궁인을 나누어 묘사하였다. 이에 비해 (11나)는 ‘궁궐에 있던 미녀들’이라고 총칭으로 서술하였으므로, ‘각시들’이라고 총칭한 『석보상절』과 비슷하다.

다만 석보상절에서 이 부분을 편집할 때에 『佛本行集經』을 참조한 것만은 확실하다. (10)에 나오는 “춣브리 떠듯 별가 잇더니”의 서술에 대응하는 구절이, 저경으로 거론된 문헌들 중에서 오직 『佛本行集經』에서만 “蠟燭及燈”의 형태로 언급되기 때문이다.

4) 天神接擧 2

‘천신접거 2’는 궁을 나선 태자가 말을 타고 성을 빠져나갈 때에 천신들의 도움을 받아 소리 없이 움직이는 장면이다. 『석보상절』 권3에서는 29면부터 30면 까지에 수록되어 있다. 이 장면은 김기중이 『釋迦氏譜』를 출전으로 지목했으나,³⁶⁾ 김성주가 『註釋迦如來成道記』를 또 다른 저경임을 밝혔다.³⁷⁾ 그런데 이 장면의 내용을 정하는 과정에서 10권본 『釋迦譜』를 참고한 흔적이 발견되므로 이를 지적하고자 한다.

35) 『釋迦譜』는 이 장면을 서술한 분량이 『석보상절』보다 짧다. 5권본에서는 쓰러진 모습을 묘사하지 않았고, 10권본의 묘사는 다음과 같다. “太子即從座起 遍觀妓女及耶輸陀羅 皆如木人 譬如芭蕉中無堅實 或有倚伏於樂器上 臂脚垂地更相枕臥 鼻涕日淚口中流涎 又復遍觀妻及妓女”

36) 김기중, 앞의 논문.

37) 김성주, 앞의 논문.

(13) 天神接舉 2 장면에서 내용 선택의 근거가 불분명한 구절

太子 | 車匿이 부르샤 (ㄱ)擡陟이 기르마 지히 오라 하시니 그지리 몰도 올
오 (ㄴ)車匿이도 올어들 太子 | 다 우디 말라 하시고 (중략) (ㄷ)太子 | 몰
타 나시니 (ㄹ)諸天이 몰 받 받고 車匿이 조쳐 자브며 (ㅁ)蓋 받고 (ㄴ)梵
王은 원 녀 겨퇴 서습고 帝釋은 올흔 녀 겨퇴 서습고 (ㅂ)四天王이 侍衛하
스바 虛空으로 城 나마 나시니라 (하략)

(13ㄱ)에서 안장을 매어 오라는 구절은 『釋迦氏譜』에서는 ‘被’, 10권본 『釋迦譜』에서는 ‘鞞’, 『註釋迦如來成道記』에서는 ‘革徭’으로 표현되었다. ‘기르마(안장)’라는 명사가 명시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면 ‘革徭’와 ‘鞞’를 의식한 듯하다. (13ㄴ)의 시점에 차닉이 우는 서술은 10권본 『釋迦譜』에만 나온다. 말을 데려오라는 태자를 만류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차닉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으로서, “爾時車匿舉聲號泣”으로 서술되었다. (13ㄷ)은 “太子上馬”라는 표현으로 『註釋迦如來成道記』에만 서술되어 있다.

(13ㄹ-ㅂ)에서는 각 행동을 하는 주체를 정한 근거가 흥미롭다. 각각의 행동에 대하여 주체가 누구인지 출전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4) 성을 나가는 태자를 모시는 각 행위의 주체

사건	釋迦譜	釋迦氏譜	釋迦如來行蹟頌	註釋迦如來成道記
말의 네 발굽을 받침	諸天	諸天	四天大王	四夜叉
蓋를 받침	釋提桓因	釋天	釋梵	天人
좌우에 시렵함	--	--	--	梵王, 帝釋
주위를 둘러쌈	--	四天王與夜叉龍等	--	天王

(14)의 표에서 밑줄로 표시한 것은 (13)의 서술에 등장한 명칭들이다. (14)의 표에는 제천들 중에서 특별히 개별적으로 제석천, 범왕, 사천왕(사천대왕, 사대천왕, 천왕), 야차, 용이 언급되어 있다.³⁸⁾ 이들 각각이 태자의 출성에서 맡은 역할이 문헌마다 조금씩 다르게 묘사되어 있는데, (13)과 비교하면 『석보상절』이 각 문헌의 내용을 조금씩 절충하였음을 알 수 있다.

38) 『釋迦如來行蹟頌』의 ‘석범’은 ‘석천’과 ‘범천’의 준말로서, 각각 제석천과 범왕을 가리킨다.

이 장면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을 나열하면 ‘말 받을 받침’, ‘따라가며 말 (고삐를) 잡음’, ‘개를 받침’, ‘좌측에 시립함’, ‘우측에 시립함’, ‘사방을 둘러쌘’의 여섯 가지이다. 이들 행위의 주체가 문헌마다 달리 서술되고 있는데, 『석보상절』에서 주체를 정한 근거를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말을 받치는 주체는 ‘제천’으로 서술되었다. 이는 『釋迦譜』와 『釋迦氏譜』를 따르면서 『釋迦如來行蹟頌』이 오류라고 판단한 것이다. 뒤에서 『釋迦如來行蹟頌』에서 말을 받치는 것으로 서술한 사대천왕에 다른 역할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이때 『註釋迦如來成道記』에 언급된 네 야차는 말을 받치는 주체로 함께 거명하지 않고 삭제하였다. 제천은 천계에 사는 여러 신적 존재들의 총칭인데, 제석천, 범왕, 사대천왕과 달리 야차는 다른 제천보다 격이 높지 않으므로 특별히 거명하지 않고 제천으로 통칭한 듯하다.³⁹⁾

따라가며 말 고삐를 잡은 것은 차닉인데, 태자가 차닉에게 말을 준비하여 끌고 오도록 하였으므로 말 고삐를 잡는 것도 차닉이 될 것이다. 문제는 바로 뒤에 나오는 ‘蓋를 받치는’ 주체가 서술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釋迦譜』와 『釋迦氏譜』에서는 제석천이 받쳤다고 서술했고, 『釋迦如來行蹟頌』에서는 제석천과 범왕이 함께 받쳤다고 서술했으며, 『註釋迦如來成道記』에서는 특별히 고유한 개체를 지적하지 않고 천인, 즉 제천 중 하나가 받쳤다고 서술하였다. 『석보상절』은 『註釋迦如來成道記』를 따라 제석천과 범왕이 좌우에 시립하는 것으로 서술하였으므로 蓋를 받치는 주체에 대해서는 『釋迦譜』, 『釋迦氏譜』, 『釋迦如來行蹟頌』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註釋迦如來成道記』를 따라 ‘천인’이 蓋를 받쳤다고 쓸 수 있었을 텐데, 주어를 생략해 버린 이유는 무엇일까?⁴⁰⁾ 이에 관해서는 추측이 어려워 미해결로 남겨둔다.

39) 익명의 심사위원회에서 ‘이 장면에 등장하는 제석천, 범왕, 사대천왕이 모두 제천에 포함되는데 제천과 제석천, 범왕, 사대천왕이 각각 다른 부류로 다루어도 되는가’ 하는 지적을 주셨다. 물론 이 여섯 또한 제천의 부류이지만, 『석보상절』의 이 장면에서 제석천, 범왕, 사대천왕은 ‘태자가 말을 타고 성을 넘는’ 사건에 제천과는 다른 방식으로 참여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제천(인원 미상의 집단), 제석천(개체), 범왕(개체), 사대천왕(4인 집단)을 서로 다른 주체로 인식하였다.

40) 이에 관하여 익명의 심사위원회에서 제천이 말과 (말을 끄는) 차닉을 한꺼번에 받치고, 동시에 蓋도 받친 것이라는 해석을 주셨다. 정황상 가능하기는 하나, 만약 그렇다면 차닉이

5) 剃髮捨俗(태자가 스스로 머리를 깎는 장면)

이것은 성을 벗어나 설산 고행림에 도착한 태자가 스스로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는 장면으로서, 『석보상절』 권3의 30면부터 32면까지에 수록되어 있다. 종래 이 장면의 저경으로 10권본 『釋迦譜』가 지적되었다.⁴¹⁾ 이 장면에서 저경의 검토가 필요한 구절은 다음과 같다.

(15) 剃髮捨俗 장면에서 저경의 검토가 필요한 구절

太子 | 아츰 쓰시에 八百 里를 녀샤 雪山 苦行林에 가시니라 이튿나래 俱夷 자다가 니르샤 짜해 디여 우르시며 (ㄱ)王과 大愛道와도 슬허 우르시며 나랏 사르미 다 슬허 두루 얻니습더라 太子 | 寶冠 瓔珞을 車匿이 주시고 니르샤디 (중략) 太子 | 도라올 쓰디 업스실씩 (ㄴ)車匿이 물와 혼씩 올오 도라오니라

(15ㄱ)에 대응하는 구절을 『釋迦譜』에서 찾으려면 다음과 같다.

(16) 『釋迦譜』에서 (15ㄱ)에 대응하는 구절

가. 5권본: 俱夷明日從寐起已 自投於地 今捨我去爲至何所

나. 10권본: 爾時太子既出宮已 至於天曉 耶輸陀羅及諸姝女從眠而覺 不見太子 悲號啼泣 (중략) 今且忽失太子莫知所在 (중략) 王聞此言屹然無聲 失其精魂若喪四體 舉宮內外皆亦如是

(16)에서 (15ㄱ)과 비슷한 내용을 모두 찾을 수는 있다. 그러나 대에도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과, 나라 안의 모든 사람 대신 궁중 안의 모든 사람이 서술되었다는 차이가 마음에 걸린다. 그런데 『釋迦如來行蹟頌』에서 더 잘 대응하는 구절을 찾을 수 있다.

말을 끌고 제천이 말 발을 받고 蓋를 받았다는 순서로 서술하였을 것이다. 지금의 문장 구조로는 차늬이 말을 끌고 蓋도 받았다는 것으로 해석되기 쉬운데, 蓋를 받치는 주체를 제천 (중 하나)로 생각하였다면 이렇게 혼동되는 구조를 채택한 이유를 상상하기 어렵다.

41) 김성주의 논문에서 저경을 10권본 『釋迦譜』로 서술하면서 원문으로는 5권본 『釋迦譜』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하여 다소 혼란스럽다(김성주, 앞의 논문, 228면). 그러나 두 판본 각각에 비슷한 내용이 있는 것은 확실하다.

- (17) 『釋迦如來行蹟頌』에서 (15ㄱ)에 대응하는 내용
 便脫寶冠與瓔珞等 分付車匿 (중략) (ㄴ)車匿大哭 馬亦悲鳴 緣路而歸 (ㄱ)父
 王姨母及耶輸等 不見太子 哀呼悶絕 舉國悲慕

‘부왕’을 ‘왕’으로, ‘이모’를 ‘대에도’로, ‘야수’를 ‘구이’로 바꿔 호칭을 통일한 것을 제외하면 (17ㄱ)의 내용은 (15ㄱ)에 대응한다. 구이가 바다에 쓰러져 우는 묘사는 『釋迦譜』에서 가져온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15ㄴ)과 (17ㄴ)을 대조하면, 『석보상절』의 (15ㄱ)은 차닉이 돌아오기 전의 사건이고, 『釋迦如來行蹟頌』의 (17ㄱ)은 차닉이 돌아온 후의 사건이다. 차닉이 돌아온 후에 온 나라 안의 사람들이 슬퍼하였다는 (17ㄱ)의 묘사를 태자가 떠난 다음날로 옮겨서 서술한 이유는, (17나)의 서술을 의식하고 그 자리에 (17)의 짧은 표현을 가져다 쓴 것이 아닌가 한다.

6) 王師尋迹

‘왕사심적’은 태자의 보관을 받아든 차닉이 돌아온 후에 왕이 파견한 대신들이 태자를 만나지만, 설득하지 못하고 시중들 사람 다섯을 남겨두고 돌아오는 장면이다. 『석보상절』 권3에는 34면에서 35면까지에 수록되어 있다. 종래 『釋迦氏譜』와 10권본 『釋迦譜』가 이 장면의 저경으로 지적되었다. 이 장면에서 저경이 불분명한 구절은 다음과 같다.

- (18) 王師尋迹 장면에서 저경이 불분명한 구절
 王이 車匿이 보시곤 太子 가신 디 가려 흐더시니 (중략) 그 臣下들히 橋陳
 如들 다섯 사르물 두어 (ㄱ)[다섯 사르물 橋陳如와 馬勝과 摩訶男과 十力迦
 葉과 拘利太子왜라] 가시는 디 보스보라 흐고 도라오니라 (ㄴ)太子 | 궤히
 며 프리며 굴히디 아니흐야 들니실씩 (ㄷ)다섯 사르미 몸 믿즈봐 그에서 사
 더라

(18ㄱ)의 주석에서 논의할 내용은 다섯 사람의 이름을 정한 근거이다. 이 5인의 이름과 태자를 따르게 되는 과정이 문헌마다 조금씩 달리 서술되기 때문이다. 이 중 다섯 사람의 이름은 南宋의 승려 법운(法雲)이 지은 『翻譯名義集』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19) 『翻譯名義集』에 제시된 교진여 등 5인에 대한 풀이
 度五比丘篇第七 : (ㄱ)橋陳如 (중략) (ㄴ)頰(烏葛)鞞 亦阿說示 此云馬勝
 亦云馬師 亦名阿輸波踰祇 此云馬星 (중략) (ㄷ)跋提 亦名婆提 本行集云 跋
 提梨迦 此云小賢 (ㄹ)文句亦名摩訶男 若五分律及本行集 則跋提與摩訶男 兩
 別 (ㄷ)十力迦葉 亦名婆敷 (ㄹ)拘利太子 (ㄷ)若涅槃疏 則摩訶男與拘利 是一
- (20) 『妙法蓮華經文句』에 제시된 교진여 등 5인에 대한 풀이
 (ㄱ)橋陳如 (중략) 所謂拘隣 : (ㄴ)頰鞞, 亦云濕鞞, 亦阿說示, 亦馬星 (ㄷ)跋
 提, 亦摩訶男, (ㄹ)十力迦葉, (ㄷ)拘利太子, 二是母親, 三是父親 (하략)

(19-20)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밑줄 그은 (19ㄹ), (19ㄷ), (20ㄷ)이다. 『翻譯名義集』에 따르면 다섯 비구, 즉 교진여 등 다섯 사람의 이름은 ‘교진여, 알비, 발제, 십력가섭, 구리태자’이다. 그런데 隋대의 승려 지의(智顛)가 설한 『妙法蓮華經文句』에서 발제를 마하남이라고 하였는데, 『彌沙塞部和醯五分律』과 『佛本行集經』에서 발제와 마하남은 서로 다르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다른 사람이다. 그리고 구리태자는 『涅槃疏』에⁴²⁾ 따르면 마하남과 동일인이라는 주석도 덧붙였다.

『석보상절』에서는 이 다섯 명을 ‘교진여, 마승, 마하남, 십력가섭, 구리태자’로 풀었다. 즉, 발제가 마하남과 동일인이고, 구리태자는 마하남과 별개의 인물이라고 본 것이다. 그렇다면 『翻譯名義集』은 수양대군이 참조한 목록에 없었을 것이고, 반대로 『妙法蓮華經文句』는 목록에 확실히 있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18ㄴ, ㄷ)을 살펴보자. 이들 구절은 아직까지 출처가 제시되지 않았다. 그런데 5권본 『釋迦譜』에서 (18ㄷ)에, 10권본 『釋迦譜』에서 (18ㄴ)에 대응하는 구절이 확인된다.

- (21) 『釋迦譜』에서 (18ㄴ, ㄷ)에 대응하는 부분
 가. 5권본 : 王念菩薩不捨心懷 普召大臣 (중략) 擇取卿等子弟五人追而侍之
 若中來者還滅汝族 五人追之(ㄷ1)不能及逮 心自念言 (중략) 歸去滅種不
 如(ㄷ2)住此

42) 『涅槃疏』가 어느 문헌을 가리키는지는 알 수 없다. 『法相宗章疏』 권1에 따르면 경흥(憬興)이 지은 14권본 『涅槃疏』와 誦許가 지은 10권본 『涅槃疏』가 있다고 하는데 양쪽 모두 CBETA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나. 10권본 : 時橋陳如等亦修苦行 供奉太子不離其側 既見此已即遣一人 還白
王師及以大臣 (중략) (ㄴ)說言太子當至阿羅邏迦蘭仙人之所 路由恒河 以
天神力而得度水

(21가)에서는 다섯 사람이 파견될 때에 왕의 위협이 있었던 것으로 서술한다. 『석보상절』은 『釋迦氏譜』에 따라 이 내용을 생략했다. 반면 (21가ㄴ1,2)에서 보이듯이, 이들이 태자의 종적을 놓쳤으나 돌아가지 않기를 택했다는 내용은 반영하였다. 뒤에 태자가 이들이 있는 산으로 오게 되므로, 그들이 거기에 있게 된 경위를 밝혀 두려고 했을 것이다.

이들 다섯 명은 태자가 발가선림을 떠나 아람가란 선인에게 가는 도중부터 태자를 따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21나ㄴ)에서 보이듯이, 태자는 도중에 있는 강을神通력을 써서 건너갔다. 『석보상절』의 ‘산이며 물이며 가리지 않고’에 정확히 대응하지는 않지만,神通력을 풀어 쓴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釋迦譜』에서는 (21나ㄴ)이 태자의 고행이 서술된 후에 장면이 바뀌어 왕에게 돌아간 사람이 태자의 소식을 전할 때에 등장한다. 이를 『석보상절』에서 굳이 앞으로 끌어올린 까닭은 석존의神通력을 강조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7) 同邪苦行 1

‘동사고행 1’은 태자가 발가선림을 떠난 후에 두 선인에게 찾아가 각각 3년씩 수행을 하는 장면이다. 『석보상절』 권3에는 35면부터 36면까지에 수록되어 있다. 김기중은 이 장면의 저경을 알 수 없다고 하였고,⁴³⁾ 김성주는 『五燈會元』 卷1, 『釋氏稽古略』 卷1, 『釋氏通鑑』 卷1을 후보로 제시하면서 『釋氏通鑑』 卷1을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았다.⁴⁴⁾ 이 글에서는 이 단락이 『釋氏通鑑』 卷1, 『釋迦如來行蹟頌』, 『註釋迦如來成道記』를 합쳐서 만들어졌다고 본다. 이 장면에서 저경을 살펴 보아야 할 구절은 다음과 같다.

43) 김기중, 앞의 논문.

44) 김성주, 앞의 논문.

(22) 同邪苦行 1 장면에서 저경이 불분명한 구절

太子 | (ㄱ)彌樓山 (ㄴ)阿藍迦蘭이라 흥 仙人 잇는 디 가샤 (ㄷ)不用處定을
三年 니기시고 (중략) 또 (ㄹ)鬱頭藍弗이라 흥 仙人 잇는 디 가샤 (ㅁ)非非
想處定을 三年 니기고 너기샤디 (ㄴ)仙人의 이리 굴근 結이샤 업거니와 (중
략) 죽사리 免흥 道理 아니로다 흥샤 (하략)

이 장면에서 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22ㄱ,ㄴ,ㄹ)의 고유명사 ‘彌樓山’, ‘阿藍迦蘭’, ‘鬱頭藍弗’은 어느 문헌에 근거하였는가? (22ㄷ,ㅁ)에서 태자가 수행한 것을 ‘不用處定’과 ‘非非想處定’이라고 표현한 것은 어느 문헌에 근거하였는가?⁴⁵⁾ 마지막으로 대응하는 구절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22ㄴ)의 출전을 찾는 일이 있다.

각 고유명사와 수행을 가리키는 표현을 먼저 살펴보자. 다음은 저경 또는 저경 후보로 제시된 문헌별로 이들의 표현을 비교한 것이다.

(23) 문헌별로 산의 이름, 두 선인의 이름, 수행을 가리키는 용어의 비교

문헌	산	제1선인	제1수행	제2선인	제2수행
10권본 釋迦譜 ⁴⁶⁾	--	阿羅邏仙人	無所有處	迦蘭	非想非非想處
釋迦氏譜	--	迦蘭仙	--	--	--
佛本行集經	阿羅邏邊	阿羅邏迦藍	不用處	--	--
釋氏稽古略	彌樓寶山	阿藍伽藍	不用處定	鬱頭藍	非非想定
五燈會元	檀特山	阿藍迦藍	不用處定	鬱頭藍弗	非非想定
釋迦如來行蹟頌	--	阿羅邏迦蘭	禪定	--	非非想處
註釋迦如來成道記	--	阿藍迦蘭	四空處定	鬱頭藍弗	四空處定
釋氏通鑑	彌樓山	阿藍迦	不用處定	鬱頭藍弗	非非想處定

(23)의 표에서 『석보상절』 권3과 일치하는 서술에 회색으로 음영을 넣었다. 『註釋迦如來成道記』와 『釋氏通鑑』의 조합만으로 해당 고유명사 및 수행을 가리키는 용어가 모두 확인됨을 알 수 있다. 제1선인의 이름을 ‘阿藍迦’가 아니라 ‘阿藍迦

45) 예를 들어, 첫째 선인의 이름은 문헌별로 ‘阿羅邏迦蘭’, ‘阿羅邏迦藍’, ‘阿藍迦’, ‘阿藍伽藍’ 등으로 다양하다. 태자가 첫 번째로 수행한 것은 ‘不用處定’으로 서술되기도 하지만 ‘無所處定’, ‘無所有處定’으로 서술되기도 한다.

46) 『普曜經』에 근거한 5권본 『釋迦譜』 ‘第四’에는 두 선인과의 만남이 서술되어 있지 않다.

蘭'으로 정한 데에는 『釋迦氏譜』의 '迦蘭仙'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명사를 담은 문장의 골격은 어디에서 왔을까?

(24) 『釋氏通鑑』과 그 외 주요 저경들의 두 선인 서술 비교

- 가. 釋迦譜：向彼阿羅邏仙人所住之處（중략）次至迦蘭所住之處（중략）時二仙人見太子去
- 나. 釋迦氏譜：太子至跋伽仙林中（중략）諸仙答曰 所修道異不敢相留 可往北行 彼有大仙（중략）遂至迦蘭仙所（중략）太子調伏二仙人已
- 다. 註釋迦如來成道記：至阿藍迦蘭并鬱頭藍弗二大仙處
- 라. 釋迦如來行蹟頌：詣跋伽仙林 見諸仙人（중략）往阿羅邏迦蘭仙人所（중략）太子調伏是二仙已
- 마. 釋氏通鑑：入彌樓山阿藍迦處 習不用處定者三年(正宗記等)（중략）乙亥四十七年 世尊遷鬱頭藍弗處 習非非想處定 又三年

(24가-마)를 비교하면, 대부분의 문헌이 두 선인과의 만남을 한꺼번에 서술하였다. (25가)처럼 두 선인이 같은 장소에 있는 것으로 기술하기도 하고, (24다)처럼 자세한 내용을 생략한 채 한꺼번에 기술하기도 하며, (24나,라)처럼 鬱頭藍弗이 빠지기도 한다. 오직 『釋氏通鑑』만이 阿藍迦 선인과 鬱頭藍弗 선인을 명시하고, 장소의 이동과 각 선인 하에서 수행한 시간을 명시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⁴⁷⁾ 또한 앞서 2)절에서 보았듯이, 두 번째 선인을 만난 시점을 '[昭王]乙亥四十七年'라고 밝힌 것도 『釋氏通鑑』뿐이다. 이 내용은 『석보상절』 권3에 '鬱頭藍弗의 그예 올마 가시며 부텃 나히 스물둘히러시니 昭王 마순닐굽차히 乙亥라'라는⁴⁸⁾ 주석으로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두 선인과의 만남을 서술하는 단락은 『釋氏通鑑』의 서술을 기본 골격으로 삼고, 여러 문헌을 검토하여 명사구를 수정하여 만들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때 『釋迦譜』에 나오는 '無所有處'라는 서술을 버리지 않고 주석으로 반영한 것도 주목할 지점이다.

47) 元대의 승려 각안(覺岸)이 지은 『釋氏稽古略』에도 阿藍伽藍 선인에게 3년, 다시 鬱頭藍 선인에게 옮겨가서 3년을 수행했다는 언급이 있다. 이는 두 문헌이 모두 北宋 때의 승려 설승(契嵩)이 지은 『傳法正宗記』를 출전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역사적 시점도 서술된 것을 고려하여 『釋氏通鑑』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48) 이 때 석존의 나이를 22세로 잡은 근거도 역시 『釋氏通鑑』일 것이다. 앞부분에서 “壬申四十四年 佛年十九歲”라고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석존이 두 선인의 가르침을 버리고 떠나는 장면을 살펴보기로 하자. 이 구절에 대응하는 저경이 한 번도 제시된 적이 없는데, 『釋迦如來行蹟頌』에서 찾을 수 있다.

(25) 『釋迦如來行蹟頌 卷上』에서 (22b)에 대응하는 구절

往阿羅邏迦蘭仙人所 詰其所斷生老病死之法 / 仙人答言 (중략) 是諸學者之彼岸 / 太子思惟 (b1)其所知見 非究竟處 (b2)但盡羸結 猶細結在 (b3)非度彼岸 (중략) 遂復前進 至尼連河側 安禪靜坐

(25b1)의 ‘그 지견’이란 문맥상 선인의 가르침을 뜻한다. (25b2)의 ‘羸’는 『신증유합』에 ‘굴굴 추’로 풀이되어 있다. (25b3)은 ‘피안으로 건너가다’의 뜻인데, 여기서 도피안을 ‘죽사리를 면하다’로 언해한 까닭은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후기 중세 국어의 불경 언해에서 ‘彼岸’은 모두 ‘더 굶’으로 언해된다. (22b)의 ‘죽사리’를 언해문에서 찾으면 모두 ‘生死’에 대응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26) ‘彼岸’의 언해 양상

가. 더 그새 다드르사몬(到於彼岸) 『법화경언해』 1:38a

나. 예서 날오매 더 그새 갈씨니(此云到彼岸) 『반야심경언해』 17b

다. 生滅이 더러 업수미 곧 더 그새 가미니(生滅滅盡 即到彼岸) 『금강경언해』 상:66b

(27) ‘生死’의 언해 양상

가. 오직 阿賴耶識 죽사릿 굽기 갈모몰 가줄비시니라(唯藏於阿賴耶識生死窟穴也) 『법화경언해』 2:128a

나. 無生佛은 죽사리 업슨 自性佛이라 『금강경삼가해』 3:45b

다. 죽사릿 바르래(生死海) 『남명집언해』 12a

그러나 (26다)에서 보이듯이, 생사에서 벗어나는 일이 곧 피안으로 건너가는 일이다. 따라서 ‘피안으로 가다’를 더 쉬운 말로 풀어서 ‘생사를 면하다’로 썼을 것이다. 이는 『석보상절』과 『월인석보』에서 ‘더 굶’과 ‘죽사리’가 언급되는 횟수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28) 『석보상절』과 『월인석보』에서 ‘더 𪎠’과 ‘죽사리’의 출현 횟수 비교

	석보상절	월인석보
더 𪎠	1	6
죽사리	9	34

(28)의 표에서 『석보상절』과 『월인석보』에서 ‘죽사리’가 ‘더 𪎠’보다 훨씬 많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다른 불교 문헌 언해에서는 ‘더 𪎠’이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고 ‘죽사리’가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죽사리’가 후기 중세의 불교 문헌 언해에 쓰인 예를 찾아 보면 『법화경언해』(1회), 『금강경삼가해』(1회), 『남명집언해』(2회)가 확인될 뿐이고, 이들은 모두 ‘生死’를 언해하여 쓰였다. 즉, ‘彼岸’을 가리키는 중세 한국어는 ‘더 𪎠’이었으나 이는 전문용어의 영역에 속했고, 보통의 백성들에게는 ‘생사를 면하는 일’로 풀어서 전달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8) 구이의 출산과 6년 임신의 배경

『석보상절』 권3은 同邪苦行 장면을 둘로 나누어, 태자가 선인들을 떠나는 장면과 태자가 니련하 근처에서 6년 수행을 시작하는 시점 사이에 구이가 아들 라후라를 낳는 장면을 삽입하였다. 이 장면은 『釋迦譜』나 『釋迦氏譜』, 『註釋迦如來成道記』에 나오지 않는다. 이 단락의 저경에 대해 기존의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6년만에 출산을 한 구이가 의심을 받았다가 결백을 증명하는 장면은 『雜寶藏經』 권10을 요약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이 장면에 바로 이어지는 전생의 인연담은 『佛本行集經』 권55의 ‘羅睺羅因緣品 第56上’을 요약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⁴⁹⁾ 그러나 이 글에서는 이 단락이 『釋迦譜』, 『釋氏通鑑』, 『釋迦如來行蹟頌』을 재구성한 산물이라고 본다. 이하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29) 구이의 출산과 6년 임신에서 저경이 불분명한 구절

(ㄱ)太子 | 出家호신 여섯 히에 [出家호신 히 마오 여섯 히니 부터 나히 스
 물다스시러시니 昭王 𪎠찰 히 戊寅이라] (ㄴ1)耶輸陀羅 | 아들 나하시늘
 [(ㄴ)耶輸陀羅는 𪎠비치라 혼 마리니 (ㄴ2)그 俱夷시니] (ㄷ)의 아드리 그

49) 김기중, 앞의 논문, 159면; 김성주, 앞의 논문, 229면.

羅睺羅 | 니 (口)그르 닐어 羅雲이라도 흐느니라 (ㅂ)釋種들히 怒호야 주구려 터니 耶輸 | 불 뛰어난 구들 디레셔 盟誓호샤디 나옴 외면 아기와 나와 흐뻑 죽고 울호면 하늘히 본즈울 흐시리라 흐시고 아기 안고 뻘여 드르시니 그 구디 蓮모시 드외야 蓮스고지 모뎀 바다늘 王이시며 나랏 사르미 그제사 疑心 아니흐니라 (스)羅雲이 前生애 흐 나랏 王이 드외야 잇더니 흐 道士 | 조고맛 罪를 지셔늘 그 王이 東山에 드려 값간 가도라 흐고 닛고 여췌를 뒹터니 그 因緣으로 여섯 히를 비 소배셔 몬 나니라 (ㅇ)耶輸는 前生애 어마 님과 흐디 가지다가 길 머리 굳바실씩 물보기 탈호야 자내 지를 어마님 맞디시고 부러 떠디여 여섯 리를 가시니 그 因緣으로 여섯 히를 비여 몬 나헛터시니라

(29)에서 특히 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29ㄴ,1,2)에서 耶輸陀羅와 俱夷가 동일인물이라는 서술은 어디에 근거했는가? (29ㄷ)에서 ‘耶輸陀羅’의 뜻은 어느 문헌을 근거로 삼았는가? (29ㄹ,口)에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羅睺羅’이고 또다른 이름으로 ‘羅雲’이 있으며 후자가 잘못된 지칭이라는 근거는 어느 문헌인가? (29ㅂ,스,ㅇ)에 대응하는 구절을 수록한 경전이 있는가?

짧게 답할 수 있는 것들부터 먼저 보기로 하자. 첫째, (29ㄱ)에 제시된 나이와 연대는 지금까지 거론된 어느 저경에도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앞서 2)절에서 석존의 출가 나이를 19세(昭王 44년 壬申)로 잡았으므로, 출가한 지 6년이라는 서술에 따라 그로부터 계산한 결과일 것이다. 둘째, (29ㅂ,스,ㅇ)에 대응하는 구절은 『釋迦如來行蹟頌』에서 찾을 수 있다.

(30) 『釋迦如來行蹟頌』에서 (29ㅂ,스,ㅇ)에 대응하는 구절

後六年耶輸果生一子 (ㅂ)諸釋咸嗔 欲治欲殺 妃臨火坑誓曰 我若爲非 子母俱滅 若其遺體 天當爲證 因抱子投坑 變爲蓮池 蓮華奉體 王及國人始復不疑 有經云 (스1)羅睺羅宿世作一國王 其兄捨世而爲(스2)道士 預衆修道 (스3)一夜誤用他瓶之水 明向衆懺 願以法罰 道衆議言 此非實垢 而不用聽 復詣王所 切請治罪 (스4)其罪輕故 不囚囹圄 (스5)乍禁後園 因事忘之 六日不開 以是因緣 六年在胎 又(ㅇ)耶輸陀羅往劫與母偕行 路遠身疲 妄稱要緣 所持之物 寄母先行 故落後行 經六里許 由是之故 六年懷妊

(30) 전체에서 주목할 점은 (30ㅂ,스,ㅇ)이 순서대로 이어진 서술 구조가 (29ㅂ,스,ㅇ)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먼저 (29ㅂ)과 (30ㅂ)을 비교하면, ‘노함’ → ‘죽

이러 함' → '불가에 다다름' → '맹세함' → '뛰어듬' → '연못 출현' → '모자를 받아냄' → '의심이 멎음' 순서로 진행되는 각각의 사건이 한 구절씩 순서대로 대응한다. 특히 '불 꺾은 구들 디레셔'에 해당하는 “妃臨火坑”을 『雜寶藏經』 권 10의 “卽將耶輸 至火坑邊”과 비교하면 이 쪽이 저경임을 확신할 수 있다. ‘디레셔’는 본동사 ‘덜다’와 보조동사 ‘-어 이시다’로 분석되는데, ‘덜다’는 ‘臨’을 언해할 때 쓰이는 동사이기 때문이다.⁵⁰⁾

(29사)을 (30사1-5)와 비교하면, 이 문장이 『釋迦如來行蹟頌』의 요약임을 알 수 있다. 라후라가 왜 6년을 태내에 있었는지 그 배경을 최소한으로 줄인 것이다. 도사가 라후라의 형이라는 관계, 도사가 한 잘못의 구체적인 내용, 도사가 먼저 청죄(請罪)했다는 내용 등은 라후라의 잘못을 설명하는 데에 없어도 무방하다.⁵¹⁾ 『佛本行集經』 권55와 대조해 보면, 『佛本行集經』은 ‘도사가 아니라 ‘선인’에 대해서 서술하였고, ‘잠깐 가두다’의 ‘잠깐’에 대응하는 구절이 없다.⁵²⁾ (30사5)의 “乍禁後園”은 ‘禁’을 ‘들여 가두다’로 해석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값간”에 대응하는 ‘乍’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으로 ‘後園’이 ‘東山’으로 언해된 것은 외래어로 자리잡은 한자어 ‘東山’이 한어(漢語) ‘園’을 번역하는 데에 쓰였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과 같은 예를 참고할 수 있다.

- (31) 한어 ‘園’과 한어에서 기원한 한국어 ‘東山’의 대응 양상
 가. 園은 東山이오 『법화경언해』 2:169a
 나. 淸淨ᄃᆞᆫ 東山에(淸淨園林에) 『법화경언해』 1:83a

(31가)에서 ‘園’과 ‘東山’의 대응 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31나)에서는 ‘園’이 포함된 명사구를 자세히 언해하지 않고 통째로 ‘東山’으로 옮기는 양상을 확인할

50) ‘덜다’가 ‘臨’을 언해하여 쓰이는 것은 『두시언해』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덜다’가 취하는 논항이 (28b)에서와 마찬가지로 대격조사 ‘-을’을 취하는 것 또한 주목하기 바란다.

軒檻을 디러셔 玉繩사 벼를 對ᄃᆞᆫ요라(臨軒對玉繩) 『두시언해』 20:21a.

51) 『釋迦如來行蹟頌』에서 이 내용을 어느 문헌에서 인용했는지는 찾지 못하였다.

52) 원문은 다음과 같다. “時 日王仙止月王言 莫禮我足 所以者何 我今是賊 大王 必須治罰我罪 如賊莫異 (중략) / 爾時 月王白彼仙言 事若爾者 入在我苑 止住修道 / 爾時 月王令此仙人入其苑已 尋即廢忘 不復更憶”

수 있다.

(29○)과 (30○)을 비교하면, 한어 '往劫'을 한자어 '前生'으로 옮기고 '懷妊'을 '못 낳았다'는 부정 서술로 바꾼 것을 제외하고 거의 언해의 양상을 띤다. "妄稱要緣"의 뜻이 불분명하나 이에 대응하는 '말보기'는 용변 또는 설사라는 뜻이므로, 배탈에 관한 서술일 것이다.

다음으로 답하기에 좀 더 어려운 구절들을 짚어 보자. (29ㄴ,1,2)와 (29ㄷ)은 석존이 태자이던 시절의 부인인 구이에 대한 서술이다. 『석보상절』 권3은 태자가 재주를 겨루어 얻은 부인을 계속 '俱夷'로 칭하다가, 이 장면에 와서 '耶輸陀羅'로 칭하고 이는 곧 俱夷라는 주석을 달았다. 이는 이 단락의 출처인 『釋迦如來行蹟頌』에서 "耶輸果生一子"라고 하여 '俱夷'가 아닌 '耶輸陀羅'로 부인을 칭했기 때문일 것이다. '俱夷'로 정정하지 않은 것은, 석존의 부인을 『釋迦氏譜』에서는 '耶輸'로, 10권본 『釋迦譜』에서는 '耶輸陀羅'와 '俱夷'를 섞어서 제시하고 있으므로 두 종류를 모두 제시하기로 택한 것이 아닌가 한다.⁵³⁾

'耶輸陀羅'와 '俱夷'가 동일인이라는 주석을 살펴보자. 『釋迦譜』 권1과 『釋迦如來行蹟頌』에서 모두, 태자의 부인이 3명이고 첫째가 俱夷, 둘째가 耶輸陀羅 혹은 耶惟檀이라고 기록한 경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라후라가 어느 부인의 소생인지 논쟁이 있다. 그러나 두 문헌에서 정식으로 채택한 서술은 태자의 부인은 1인이고, 라후라는 그 부인의 소생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태자의 부인을 설명할 때에 차이가 있다.

(32) 『釋迦譜』 권1에 제시된 구이에 대한 설명

釋迦內外族姓名譜第七(出長阿含經) : 菩薩婦家姓瞿曇氏 舍夷長者名水光 (중략) 有一城居近其邊 生女之時日將欲沒 餘明照其家室內皆明 因字之爲瞿夷(瞿夷晉言明女) 瞿夷是太子第一夫人(出十二遊經) 太子第二夫人 生羅云者名耶惟檀 其父名移施長者

(33) 『釋迦如來行蹟頌』에 제시된 야수다라에 대한 설명

(ㄷ)耶輸陀羅此云華色 端正第一 (ㄴ)卽宿世賣華女 名瞿夷也 以宿願故 今亦作妃[宿世之事 文煩不錄]

53) 5권본 『釋迦譜』의 권1에서는 耶輸陀羅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으나, 권2부터 언급된다.

(32)와 (33)을 비교하면, (29ㄴ,ㄷ)으로 서술된 耶輸陀羅 주석의 출처가 (33)임을 알 수 있다. (32)에서는 ‘耶惟檀’을 제2부인으로 서술했으나 뜻풀이를 제시하지 않았고, 구이만을 ‘明女’라는 뜻이라고 풀었다.⁵⁴⁾ 그에 비해 (33ㄷ)은 ‘耶輸陀羅’의 뜻을 ‘華色’으로 제시하였으므로, (29ㄷ)에서 ‘꽃빛’으로 풀이한 것에 대응한다.⁵⁵⁾

또한 『釋迦譜』 권1을 보면, 이 두 이름의 관계를 서술한 부분이 없다. 특히 구이는 표기에 쓰이는 한자도 세 종류나 되는데, ‘耶輸陀羅’, ‘俱夷’, ‘裘夷’, ‘瞿夷’가 모두 동일인이라는 사실은 태자가 이 여인을 얻기 위해서 재주를 겨루었고 6년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했다는 서술의 공통성에서 추측하는 수밖에 없다. 반면에 (33)에서는 ‘耶輸陀羅’는 현생의 이름이고, ‘俱夷’는 이 여인이 태자의 비가 되는 계기를 제공한 전생의 이름이라고 서술하여 두 이름의 관계를 기술하였다. 어느 한쪽이 잘못된 전승이 아니라 둘 모두가 같은 사람의 다른 이름이라고 볼 명서적인 근거가 있었기에 耶輸陀羅가 곧 俱夷라는 주석을 쓸 수 있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29ㄹ,ㅁ)에서 언급된 아들 라후라에 대하여 살펴보자. (29ㄹ)에서 구이가 낳은 아들을 라후라로 정한 근거는 앞서 俱夷와 耶輸陀羅의 관계를 살필 때에 이미 보았다. 『釋迦譜』 권1의 ‘釋迦內外族姓名譜 第七’에서 언급되듯이 많은 경에서 라후라가 俱夷의 아들이라고 서술하였고, 다른 견해를 펴는 경에서는 라후라가 耶輸陀羅 또는 耶惟檀의 아들이라고 서술하였다. 俱夷와 耶輸陀羅를 동일인으로 본다면 그 아들이 라후라임도 확신할 수 있다.

이제 더 살펴볼 것은 (29ㅁ)에서 언급된, 羅睺羅의 다른 이름인 ‘羅雲’은 잘못된 호칭이라는 서술이다. 羅睺羅와 羅雲이 동일 인물이라는 것은 『釋迦譜』 권1의 ‘釋迦內外族姓名譜 第七’의 동일 단락 안에서 아들의 호칭이 ‘羅云’과⁵⁶⁾ ‘羅睺羅’로 바뀌는 곳이 있으므로 추정이 가능하다. 그런데 ‘羅雲’이 잘못된 이름이라

54) 10권본 『釋迦譜』 권1의 ‘第四之一 ~ 第四之五’에서 태자의 부인을 耶輸陀羅로 호칭하는 경을 여럿 인용하기는 하지만, ‘耶輸陀羅’라는 이름의 유래를 적은 사례는 없다.

55) 『佛祖統紀』 권34에도 耶輸陀羅의 뜻에 대한 주석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此云華色女’라고 하여 ‘女’가 붙는다.

56) CBETA에서는 ‘雲’이 ‘云’으로 입력된 예가 많으므로 검색할 때에 주의해야 한다.

는 서술의 근거는 무엇일까?

CBETA에서 검색되는 범위 안에서는, 羅睺羅와 羅雲이 동일 인물이라고 명시 하면서⁵⁷⁾ 羅雲이 잘못된 이름이라고 지적하는 주석은 모두 唐나라의 승려 현장 (玄奘)이 구술한 『大唐西域記』 권4에서 기원한다. 현장은 인도의 “秣菟羅國”(현재의 마투라 지방)을 서술할 때에 그곳에 답이 남아 있는 석존의 제자들을 나열 하면서, 각각의 이름에 주석을 달았다.

- (34) 『大唐西域記』 권4에 제시된, ‘羅睺羅’와 ‘羅雲’을 풀이한 서술
 過去四佛遺迹甚多 / 釋迦如來諸聖弟子遺身窣堵波 謂舍利子(舊曰舍梨子 又曰舍利弗 訛略也) (중략) 羅怛羅(舊曰羅睺羅 又曰羅雲 皆訛略也) (중략) 諸菩薩窣堵波等

(34)의 주석은 羅睺羅와 羅雲이 모두 羅怛羅의 잘못된 호칭이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석보상절』 권3의 저경으로 거론된 경들에는 “羅怛羅”라는 호칭이 등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羅怛羅”는 받아들이지 않고 羅雲이 잘못된 호칭이라는 서술만 주석으로 반영하였을 것이다.

9) 同邪苦行 2

‘동사고행 2’에서는 장면이 바뀌어서 다시 석존의 행적이 서술된다. 두 선인의 가르침에 실망하고 떠난 태자가 혼자서 6년간 수행을 하는 장면이다. 『석보상절』 권3에는 37면부터 38면에 수록되어 있다. 종래 『釋迦氏譜』와 5권본 『釋迦譜』가 이 장면의 저경으로 지적되었다. 여기에서 저경의 검토가 필요한 구절은 다음과 같다.

- (35) 同邪苦行 2에서 저경의 검토가 필요한 구절
 풀 짚오 結加跏坐 ㅎ샤 (중략) 天神이 바블 받꺾거늘 아니 좌실씨 自然히 겨떡 열과 발와 나긔 ㅎ니라 太子 | (ㄱ)ㅎ르 ㅎ 남곰 닐웨예 ㅎ 남곰 좌시고 (중략) ㅎ 말도 아니코 안꺾거시든 (ㄴ)머리에 가치 샷기 치더니 사르미 보고 荒唐히 너겨 (하략)

57) 이외에도 『法華經卓解』 第4卷의 ‘五百弟子受記品第八’에 ‘羅雲即羅睺羅’라는 주석이 나오기는 하나, 이 문헌이 작성된 것은 17세기이다.

(35)는 5권본 『釋迦譜』에서 인용된 『大善權經』과 『瑞應本起』를 조합하면 거의 구절별로 대응하므로 저경에 대해 더 논의할 것은 없다. 다만 5권본 『釋迦譜』와 정확히 대응하지 않는 (35ㄱ)과 (35ㄴ)의 서술이 어디에서 근거한 것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35ㄱ)에서는 삼 열매와 쌀을 하루에 한 알씩 먹었다는 것인지 7일에 한 알씩 먹었다는 것인지 모호한데, 대응하는 5권본 『釋迦譜』에는 7일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 서술은 10권본 『釋迦譜』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36) 10권본 『釋迦譜』에서 (35ㄱ)의 '7일'에 대응하는 서술

釋迦降生釋種成佛緣譜 第四之三(出因果經) : 於是諸天奉獻麻米 太子爲求真道故 淨心守戒日食一麻一米 (중략) 爾時橋陳如等五人 既見太子端坐思惟修於苦行 (ㄱ1)或日食一麻 或日食一米 或復二日乃至七日 食一麻米 (중략) 爾時太子心自念言 我今(ㄱ2)日食一麻一米 乃至七日食一麻米 身形消瘦有若枯木

(36ㄱ1)은 교진여 등의 시점에서 묘사한 것이고 (36ㄱ2)는 석존이 스스로의 고행을 술회한 것이다. 하루에 한 알씩 내지는 이틀에서 이레에 한 알씩 먹었다고 적혀 있으므로, 석존의 고행이 얼마나 힘들고 엄격했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7일 구절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35ㄴ)은 석존이 묵언수행을 하며 미동도 않고 앉아 있느라 까치가 그 머리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인데, 이 내용은 『釋氏通鑑』에서 찾을 수 있다.

(37) 『釋氏通鑑』 권1에서 (34ㄴ)에 대응하는 구절

戊寅五十年 : 世尊遷象頭山 同諸外道 日[(夕*又)/食]麻麥 鵲巢于頂 以無心意無受行 而外道摧伏 又居六載(正宗記等)

석존이 묵언수행을 할 때의 양상을 묘사한 것은 검토된 저경들 중에서는 5권본 『釋迦譜』와 『釋氏通鑑』뿐이다. 『釋迦譜』에서는 '손을 들어 [비를] 가리지도 않았다(未曾舉手以自障蔽)'라고 묘사하였는데, 이는 '앉아 있다'는 묘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釋氏通鑑』에서 까치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보충한 듯하다.

10) 浴身受食 1

‘육신수식 1’은 6년간 목욕과 금식 수행을 한 석존이 생각을 바꾸어 니련하에서 목욕을 하고 우유죽을 받아서 먹는 장면이다. 『석보상절』 권3에서는 39면에서 41면에 수록되어 있다. 이 장면은 종래 5권본 『釋迦譜』가 저경으로 지적되었으나 『釋迦氏譜』와 10권본 『釋迦譜』 및 『註釋迦如來成道記』를 함께 참조한 흔적이 있으므로 조금 더 검토하기로 한다. 또한 이 장면에서 등장하는 주석들의 출처도 가능한 한 추적해 보겠다.

(38) 浴身受食 1에서 저경이 불분명하거나 논의가 필요한 구절

(상략) 太子 | 너기샤터 여원 모모로 菩提樹에 가면 [(ㄱ)菩提樹는 부테 그 나모 아래 안즈샤 菩提를 일우실씩 菩提樹 | 라 호느니라] (중략) 太子 | 므레 드러 沐浴 김거시닐 (ㄴ)諸天이 種種 花香을 므레 비터니 (ㄷ)樹神이 가지를 구핀대 太子 | 둥기야 나거시닐 (중략) 그 쓰리 粥 가져 드러 머리 조 싯하닐 바다 좌시고 (ㄹ)그 바리를 므레 더디신대 帝釋이 가져 忉利天에 가 아 塔 일어 供養호습더라 [이 塔은 天上 네 塔엿 호나히라 (하략)]

이 장면의 골격은 종래의 지적대로 5권본 『釋迦譜』에서 인용한 것이다. 유미죽 공양의 자세한 내용을 각 문헌이 다르게 서술하는데, 5권본 『釋迦譜』만이 『석보상절』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5권본 『釋迦譜』에 등장하지 않는 (38ㄱ-ㄹ)의 출전을 찾아본다.

(38ㄱ)의 주석은 불교학의 관점에서 상식에 속하는 것이라 출전을 찾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석보상절』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불교 용어 주석은 모두 출전이 있었으므로, 이 역시 출전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의 출처가 될 수 있는 문헌으로 『大唐西域記』와 『佛祖統紀』를 찾을 수 있었다.

(39) 보리수에 대한 주석이 (38ㄱ)에 대응하는 구절로 이루어진 문헌

가. 『大唐西域記』 권8 : 金剛座上菩提樹者 卽畢鉢羅之樹也 昔佛在世 高數百尺 屢經殘伐 猶高四五丈 佛坐其下成等正覺 因而謂之菩提樹焉
 나. 『佛祖統紀』 권2, [穆王]四年(癸未) : (중략) 我坐樹下若道不成要終不起 (諸經多言菩提樹 此翻爲道 言坐此樹下成道也 其樹正名畢鉢羅)

(39가, 나)는 모두 畢鉢羅樹의 이명으로 보리수가 있음을 지적하고 석존이 그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내용을 서술한 것이다. 문장의 구조는 (39가)가 (38ㄱ)과 가깝다. 또한 이후 11)절에서 논의하겠지만, 『석보상절』 권3에서 (39가)를 참조했음을 확신케 하는 정황이 있다. 그러나 (39나)는 (38)의 장면과 바로 이어지는 그 다음 장면에서 베풀어진 주석이므로, 함께 참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석존의 목욕 장면을 서술한 (38ㄴ, ㄷ)은 『釋迦氏譜』와 『註釋迦如來成道記』에서 인용한 것이다. 대응하는 구절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40) 『釋迦氏譜』와 『註釋迦如來成道記』에서 (38ㄴ, ㄷ)에 대응하는 구절
 가. 『釋迦氏譜』 七浴身受食相 : 卽從坐起入河洗浴 身體羸瘦(ㄷ1)天爲按樹 得攀出池
 나. 『註釋迦如來成道記』 “浴其身也入連河” : 經云 菩薩入尼連河浴時 (ㄴ)有諸天持種種華香散河中 (ㄷ2)浴訖時有樹神按樹枝低手 引菩薩出水登岸

(40나ㄴ)에서 諸天이 여러 가지 꽃과 향을 강물에 뿌렸다는 서술을 볼 수 있는데, ‘華’를 ‘花’로 바꿔서 이해한 것이 눈에 띈다.⁵⁸⁾ (40가ㄷ1)과 (40나ㄷ2)에서는 나뭇가지가 굽어서 태자가 물 밖으로 나오도록 돕는 사건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석보상절』과 대조하면, 나뭇가지를 굽힌 주체가 樹神인 점이나 태자가 가지를 당겨 나오는 묘사를 볼 때 (40나ㄷ2)를 요약했음을 알 수 있다. ‘攀’은 이해된 예가 없으나 『신증유합』에서 ‘더위자불 반’으로 풀이되었는데, ‘引’은 ‘둥기다’로 이해된 사례가 확인되기 때문이다.⁵⁹⁾

태자가 죽을 먹고 바리를 강물에 던지니 제석천이 가져가서 탑을 세우는 (38ㄷ)의 묘사도 『註釋迦如來成道記』에서 대응하는 구절을 찾을 수 있다.⁶⁰⁾

- (41) 『註釋迦如來成道記』에서 (36ㄷ)에 대응하는 구절
 菩薩食已 將其鉢擲向尼連河中 天帝釋收歸天上建塔安置供養 此四塔之三也

58) 여기에서 “經云”이라고 한 것은 『佛本行集經』 권25의 ‘向菩提樹品 第30 上’을 가리킨다.

59)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적적 둥기면 나느니라(小小引之則出)” 『구급방언해』 상:50a.

60) 이 주석 또한 『佛本行集經』 권25의 ‘向菩提樹品 第30 上’에서 인용한 것이다.

(38ㄷ)에서 제석천이 가져가서 탑을 세운다는 구절은 『註釋迦如來成道記』의 영향이었을 것이다. 이 ‘天上四塔’ 이야기는 모두 『佛本行集經』에서 기원하지만, 원전에서는 해당 단락에 탑을 세운다는 명시적인 서술이 없다.⁶¹⁾

11) 浴身受食 2

‘육신수식 2’는 목욕을 하고 죽을 먹은 석존이 나무 아래로 가 다시 수행을 시작하니 주위의 초자연적 존재들이 기뻐하는 장면이다.⁶²⁾ 『석보상절』 권3에서는 41면에서 42면까지에 수록되어 있다. 이 장면의 저경으로는 『釋迦氏譜』, 『佛本行集經』 권26, 『註釋迦如來成道記』가 지적되었다.⁶³⁾ 이하에서는 주석을 포함하여 아직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문장의 출전을 살펴본다.

(42) 浴身受食 2에서 저경의 검토가 필요한 구절

(상략) 菩薩이 호오사 畢鉢羅樹로 가더시니[(ㄱ)畢鉢羅樹는 으쓰미 누르고
희오 가지와 님과 퍼러코 겨스레도 님 아니 디느니 부테 이 나모 미퓌 안즈
샤 正覺을 일우실씩 菩提樹] 라도 호느니라 (ㄴ)부테 金剛定에 드르실씩 이
나모 아래를 金剛座]라 호느니 (중략)] 호 迦茶]라 흥龍이 長壽호야 아래
세 부텃 成道를 보스바 잇더니 [(ㄷ)세 부터는 拘樓孫佛와 拘那[舍]牟尼佛
와 迦葉佛□시니라 (중략)] (ㄹ)諸天이 문져 하늬 幡과 蓋와 가져다가 즈게
우희 드라 보랍 두니라

(42ㄱ,ㄴ)에서 필발라수의 주석 출처는 지금까지 논의되지 않았다. CBETA에서 검색되는 범위 안에서 이에 대응하는 내용을 서술한 문헌은 『大唐西域記』 권 8뿐이다.⁶⁴⁾ 관련된 내용만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61) 원문은 다음과 같다. “是時天主釋提桓因 (중략) 取金鉢 向忉利宮三十三天 恒自供養 於今彼處三十三天立節 名爲供養菩薩金鉢器節”

62) 선행 연구에서는 눈먼 용이 찬탄하는 내용을 경계로 삼아 이 장면을 둘로 나누었다(김기중, 앞의 논문; 김성주, 앞의 논문). 그러나 문장이 끊기지 않으므로 분절하지 않고 한 장면으로 다루었다.

63) 위의 논문들.

64) 다른 문헌에서 언급되는 것은 모두 『대당서역기』의 인용이다.

(43) 『大唐西域記』 권8에서 (42ㄱ, ㄴ)에 대응하는 구절

摩揭陀國 上 : (ㄴ1) 菩提樹垣正中, 有金剛座 (중략) 賢劫(ㄴ2)千佛坐之而入金剛定, 故曰金剛座焉 (중략) (ㄴ3) 金剛座上菩提樹者 (ㄱ1) 卽畢鉢羅之樹也 (중략) (ㄱ2) 佛坐其下成等正覺, 因而謂之菩提樹焉 (ㄱ3) 莖幹黃白 枝葉青翠 冬夏不凋

(43ㄴ1,2,3)에서 서술된 내용은 보리수 나무 아래에 금강좌가 있고, 금강좌라는 이름은 부처가 그 자리에 앉아서 금강정에 든 데에서 유래한다는 것이다. (42ㄴ)의 주석이 이를 요약한 것임을 알 수 있다. (43ㄱ1,2,3)에서 서술된 내용은 필발라수는 곧 보리수이고, 보리수라는 이름은 부처가 그 아래에 앉아서 정각을 이룬 데에서 유래하며, 이 나무의 줄기 색깔이 어둡히고, 겨울에도 잎이 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42ㄱ)의 주석 역시 이 내용을 요약한 것이 분명하다.⁶⁵⁾

(42ㄴ)에서는 세 부처의 이름이 어느 경전에 언급되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 이는 석존이 몇 번째 부처인가, 그리고 석존 이전의 부처는 누가 있었는가 하는 주장과 연결되므로 반드시 출전이 있었을 것이다. 이것을 언급한 경은 매우 많으나, 마침 『釋迦氏譜』의 ‘一序 所依賢劫’에서 동일한 한자 구성으로 부처의 이름을 서술한 것이 확인된다.

(44) 『釋迦氏譜』에서 (42ㄴ)에 대응하는 구절

一序 所依賢劫 : 從拘留孫爲首 最後成佛號曰樓至 是知第一拘留孫如來 第二迦那含牟尼 第三迦葉波 第四釋迦牟尼 我等所師則賢劫中第四佛也

(44)에서는 현겁(賢劫)에 출현하는 천 분의 부처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첫째로 출현하는 부처가 구류손여래, 둘째가 가나함모니, 셋째가 가섭파, 넷째가 석가모니라고 나열하고 있다. (42ㄴ)이 풀이하는 것은 석존 이전의 세 부처이므로 위 목록대로 주석을 단 것이다. ‘가섭파’ 대신 ‘가섭’으로 이름을 정정한 까닭은 알 수 없으나 그것이 더 널리 알려진 호칭이 아니었나 한다.

65) 『註釋迦如來成道記』에도 금강좌에 대한 주석이 있는데, ‘此座下連金輪 故云金剛座’라고 하여 금륜과 연결하여 풀이하였다. 양쪽을 대조한 후 더 짧게 설명할 수 있는 풀이를 택했을 것이다.

(42ㄹ)은 석존이 죽을 먹은 후 필발라수 아래로 가서 자리에 앉기까지 일어난 여러 상서로운 일 중의 하나이다. 이에 대응하는 구절은 『註釋迦如來成道記』에 있다.

(45) 『註釋迦如來成道記』에서 (42ㄹ)에 대응하는 구절

“詣菩提之道場”：梵云菩提 華言道 謂佛在彼成道 故曰道場 (중략) 本行集經云 菩薩將至彼處 色界諸天先以天繪幡盖懸於樹上 用爲標幟

(45)와 (42ㄹ)을 대조하면 (42ㄹ)이 석존이 풀을 깔고 나무 아래에 앉는 사건보다 먼저 서술된 데에 비해, (45)는 그보다 뒤에 서술되었다. 이는 『註釋迦如來成道記』에서 석존이 자리에 앉는 사건을 모두 서술한 후에 그 자리를 설명하는 순서를 택했기 때문이다. 석존이 앉기 전에 제천이 표식을 했다는 인식은 두 문헌이 동일하다. (45)에서 출전으로 삼은 『佛本行集經』 권26, ‘向菩提樹品 中’을 보면 석존이 다른 나무를 보리수라고 착각하는데, 진짜 보리수를 알려주기 위해 제천이 표식을 한다. 『석보상절』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42ㄹ)의 서술을 앞당기되, 길게 서술된 『佛本行集經』보다는 짧게 요약된 『註釋迦如來成道記』의 구절을 택했을 것이다.

12) 浴身受食 3

‘육신수식 3’은 석존이 보리수 아래에 도달한 다음, 자리에 앉을 때까지 일어난 사건을 나열한 장면이다. 『석보상절』 권3에서는 42면부터 43면까지에 수록되어 있다. 종래 10권본 『釋迦譜』가 이 장면의 저경으로 지적되었다. 그러나 주석을 포함하여 대응하는 구절이 발견되지 않은 구절이 몇 군데 있으므로 이하에서 살펴본다.

(46) 浴身受食 3에서 저경의 검토가 필요한 구절

(ㄱ) 西天스 法에 모로매 프를 실오 안져니 天帝釋이 사르미 드외야 (ㄴ) 孔雀의 목빛 ㄹ튼 프를 뷔여 가거늘 (중략) 그저기 諸天이 八萬 菩提樹엿 獅子座를 밍ㄹ니 [(ㄷ) 獅子座는 부텃 座] 시니 獅子는 중싱들히 다 저흘씨 부텃 威嚴과 德과를 가즐며 獅子座]라 흐느니라] (하략)

(46ㄱ, ㄴ)은 석존이 풀을 찾고 제석천이 풀을 바치는 장면이다. 10권본 『釋迦譜』에서는 석존이 풀을 찾게 된 경위를 과거 여러 부처가 풀 위에 앉아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서술했는데, ‘서천의 법’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까닭은 무엇일까? 이 구절은 『註釋迦如來成道記』에서 가져온 듯하다. 풀의 색상에 대한 묘사도 같은 단락에서 제시되므로, 한꺼번에 보기로 하자.

(47) 『註釋迦如來成道記』에서 (46ㄱ, ㄴ)에 대응하는 구절

“示其座也受吉祥之茆草” : (ㄱ)天竺坐法必敷草爲藉 時天帝釋化爲刈茆人 菩薩問其名 答名吉祥 乃受其茆 (ㄴ)茆色青綠柔軟 光滑若孔雀頂

(47ㄱ)에서 ‘천축의 앉는 법은 모름지기 풀을 깎다’라고 하였으니, ‘坐法必敷’ 부분이 (46ㄱ)에 대응한다. ‘천축’을 ‘서천’으로 옮긴 까닭은 그것이 더 어려운 단어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월인석보』 권2에서 ‘천축’에 주석을 단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48) 『월인석보』 권2에 제시된 ‘천축’에 대한 주석

蔡暗들히 天竺國 이웃나라 月支國에 다드라[天竺은 西天 나라히라] 『월인석보』 2:66a

석존이 깎 풀을 10권본 『釋迦譜』나 『釋迦氏譜』에서는 “정결하고 부드러운 풀(淨軟草)”이라고 서술하였다. ‘공작의 목 빛’ 같다는 서술은 여러 경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註釋迦如來成道記』가 이미 여러 곳에서 인용되었으므로 (47ㄴ)이 출처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46ㄷ)에 서술된 주석의 출처를 확인해 보자. 사자좌에 대한 설명은 『大唐西域記』를 비롯하여 지금까지 검토한 저경들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CBETA에서 검색되는 범위 안에서는, 사자좌에 대한 주석은 인도의 승려 나가르주나[용수(龍樹)]가 집필하고 後秦 때의 승려 구마라집(鳩摩羅什)이 번역한 『大智度論』 권7에서 기원한다. (46ㄷ)을 작성하면서 『大智度論』을 직접 참조했거나, 宋대의 사탄(思坦)이 지은 『楞嚴經集註』 권1에서 보았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49) 『大智度論』 권7과 『楞嚴經集註』 권1에서 (44ㄷ)에 대응하는 서술

가. 『大智度論』 권7, 大智度初品中佛土願釋論 第十三 :

問曰：何以名師子座⁶⁶⁾ / 答曰：是號名 師子 非實師子也 佛爲人中師子 佛所坐處若床若地 皆名 師子座 譬如今者國王坐處 亦名師子座 (중략) 又如師子 四足獸中獨步無畏 能伏一切 佛亦如是 於九十六種道中一切降伏無畏故 名人師子

나. 『楞嚴經集註』 권1, “爾時世尊 開示阿難及諸大衆 欲令心入無生法忍 於獅子座” : (중략) 故大論云 佛人中獅子 故佛所坐名獅子座 佛之所說名獅子吼

(49가,나)는 (46ㄷ)에 일대일로 대응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부처님의 자리를 사좌자라고 부른다는 점, 부처님이 사자에 비유되는 것은 사자가 못 짐승을 굴복시키듯 부처님은 모두를 굴복시키기 때문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를 유표적인 사동형 문장구조로 표현하지 않고 ‘중생이 부처를 두려워한다’는 타동형 문장구조로 옮겨서 요약한 것이 (46ㄷ)일 것이다.⁶⁷⁾

4. 결론

지금까지 『석보상절』 권3에서 아직 대응하는 저경이 불분명한 채로 남은 구절들에 대하여 출전을 확인해 보았다. 저경 후보 말뭉치를 따로 구성하고 말뭉치 검색도구를 이용해 저경을 탐색한 결과, 출처가 불분명하게 남아있던 구절들의 출전을 모두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저경을 요약한 것으로 여겨졌던 구절 일부도 더 정확히 대응하는 원문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그간 자세히 논의되지 않았던 『釋迦如來行蹟頌』과 『釋氏通鑑』이 『석보상절』 권3의 집필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 글에서는 그간 출처를 논의하지 않았던 주석들 일부에 대해서도 그

66) CBETA에서는 ‘사자’의 대부분이 ‘獅子’ 대신 ‘師子’로 입력되어 있어 검색할 때에 주의해야 한다. 비슷한 사례로 ‘雲’이 ‘云’으로, ‘衆’은 ‘衆’으로, ‘爲’는 ‘爲’로 입력되는 등이 있다.

67) 혹은 문헌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전문가에게 설명을 들어서 작성했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출전을 추적해 보았다. 저경이 모호했던 본문의 구절을 중심으로 근처에 등장하는 주석만 살펴보았다는 한계가 있으나, 『大唐西域記』와 『妙法蓮華經文句』 등에서 주석을 이루는 내용을 가져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글에서 진행한 작업을 『석보상절』 전체로 확대하여 진행하면 다른 많은 주석들의 출전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본문비평, 말뭉치 언어학, 석보상절, 저경, 석가여래행적송, 석씨통감
투고일(2018. 1. 26), 심사시작일(2018. 2. 19), 심사완료일(2018. 3. 5)

〈Abstract〉

Textual Criticism of the Chinese Draft for Seokbosangjeol vol.3

Kim Migyeong *

This paper suggests a new methodology for the textual criticism of the Classical Chinese draft for Seokbosangjeol 釋譜詳節, a biography of Gautama Siddhartha written in Early Middle Korean in 15th century. The paper demonstrates how it works by applying it to Seokbosangjeol vol. 3. The preface of the book says that its contents came from the Shijia Pu 釋迦譜 and Shijia Shi Pu 釋迦氏譜. It has, however, been known that there were other references such as the Lotus Sutra 妙法蓮華經. The author made use of a corpus consisted of Buddhist texts and found that there were other references such as Seokgayeorahaengjeoksong 釋迦如來行蹟頌, Shishi tongjian 釋氏通鑑, etc. The selection criteria as well as the list of the corpus texts are discussed in the paper.

Key Words : Textual Criticism, Corpus Linguistics, Seokbosangjeol, genealogy of texts, Seokgayeorahaengjeoksong, shi shi tong jian

* Ph.D. student, Department of Linguistics, Seoul National University.